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855-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16, 2017 Vol. 566

생명의 벽돌 쌓는 기쁨 아세요?

〈오늘도 희망이다 2〉 갈릴리선교교회 한천영 목사



처음부터 자신의 사명을 알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자신이 열방을 구하는 사람이 될 줄 미리 알았을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자신이 놓는 벽돌의 의미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한천영 목사에게 갈릴리선교교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스토리'였다. 주일에 설교 한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 방문했다가 부목사가 됐다. 40년 역사 가운데 한때는 250명까지 부흥했던 교회인데 담임목사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교세가 많이 줄어든 상태였다. "오늘부터 한천영 목사가 담임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에겐 담임목사 취임식을 대신했다.

담임이 되어 교회를 정리하다가 창고가 되어 버린 소예배실에서 주보 한 장을 발견했는데 청년회 주보였다. 두 가지 때문에 놀랐다. 한때는 청년이 그렇게 많았다는 사실과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을 청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1세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가 '무너진 성벽'처럼 된 것에 눈물이 났다.

남은 성도 30명 가운데 60세 이하를 세어 보니 7명이었다. 그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하면서 갈릴리선교교회에 주신 사명을 찾으려 했다. 당연히 보이는 건 없었다. 좋은 프로그램도 쫓아다녀 봤지만 '그 큰 교회'에서나 가능한 일이었다. 교회 위치를 보니 LA 한인타운 저 바깥쪽 10번 프리웨이 건너서다. 걸어서 1분만 내려가면 흑인들의 거주지가 나오고 한인은 눈씻고도 찾아볼 수 없었다. 주차장 사이즈를 보니 승용차 5대나 댈 수 있을까? 소위 대형교회가 되긴 힘든 조건이다.

그러다 만난 것이 가정교회 시스템이었다.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더한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LA 한인타운 이민자의 삶이 빤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했죠. 그런데 행복은 목사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더라구요.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행복한 겁니다."

잘 알려진 대로 가정교회는 불신자 전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불신자를 가정에 초대해 밥 먹는 게 시작이다. 밥 먹다가 친해지고 친해지다가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다 보면 교회까지 오게 된다.

갈릴리선교교회는 전도의 원칙을 세웠다. "불신자만 전도한다." 기독교인일 경우는 LA 지역에 새로 이사 와서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거나 1년 이상 교회를 안 나간 사람이어야 한다.

"대단한 거 없어요. 정성껏 밥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밥해 먹일 사랑이 없으면서 내 안에 복음이 있다, 예수의 심장이 있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죠."

자기 밥 챙겨 먹기도 힘든 이민생활에 불신자들 밥해 먹이느라 고생이 많다지만, 수개월 공들인 그 불신자가 주일예배에 나올 때 온 교회는 축제에 빠져든다. 그렇게 불신자 전도에만 집중해 2개 목장은 10년 만에 9개 목장으로 늘어났다. 성도도 80명으로 성장했다. 폭발적 성장과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가정교회 리더들이 느헤미야가 벽돌을 놓듯이 차곡차곡 전도한 새 생명들이다.

이 교회는 교회법상 미조직교회다. 장로가 '아직도' 없기 때문이다. 3명 정도 장로를 세울 기회가 왔지만 가정교회 리더들이 고사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에 중독(?)되어서 장로는 자기 소명이 아니란 거다.

"목사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죠. 그러나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집중하겠다는데 뭐 어쩝니까?"

작은 교회 갈릴리선교교회와 한천영 목사는 오늘도 행복하다. 죽은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의 잔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글 · 사진 김준형 기자

교회 주소)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전화번호) 323-735-6412

"예수영맥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교회및학원.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강좌 "back to the bible"
남가주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원전강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토브성경원전연구소에서
남가주목회자들을 위한 "신 구약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구약(TORAH:창,출,레,민,신)부터 신약까지 성경을 히브리식 사고에 입각해
통전(Wholeness), 통합(Harmony), 통섭(Consilience)의 히브리식 사고(Hebrew Thinking)로
형성된 키아즘 구조(Chiasm)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 첫번째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로마서 원전강해]를 시작합니다.
통전 Wholeness
통합 Harmony
통섭 Consilience
키아즘 구조 Chiasm
▪강사 : 강신권 목사 (토브성경원전연구소 원장, 테필린 국제강사)
▪일시 : 3월 3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 기독일보(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비용 : 교재비 20불
▪인원 : 20명
강사: 강신권 목사
▪주최 : 토브성경원전 연구소 ▪주관 : 기독일보 ▪문의 : (213)739-0403, (213)434-1170

“한국 선교가 다시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길”

조용중 KWMA 신임 사무총장 인터뷰

“한국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300명의 용사를 찾고,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7천 그룹을 찾아 선교를 위한 기도의 불이 함께 불타오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신임 사무총장 조용중 선교사는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선교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말할 것이 아니라, 기도 그룹들부터 네트워킹 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9일 KWMA 정기총회에서 한정국 전 사무총장에 이어 4년 임기의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조용중 선교사는 최근 KWMA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선교지에 오면 한국교회의 기도도 함께 온다고 기대가 크다”며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가’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선교가 기도운동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영적 자원 외에도 한국선교의 세계화와 건강성을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발굴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해외 한인교회 파송 선교사 중 신학을 공부한 ‘1호 선교사’다. 미국 트리니티칼리지,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를 마치고, 1987년 미국 시카고의 한인교회에서 파송받아 필리핀 선교사(1988~1993)로 사역했으며 트리니티국제대학교 문화교류학 박사학위(1998~1993)를 취득했다. GP선교회 미주대표(1997~2005), GP선교회 국제대표(2005~2008), GP선교회 연구개발원장(2008~2012)을 역임하고, 최근까지는 NGO 글로벌호프 대표로서 9개국에서 창의적 사역을 위한 비영리법인 설립과 운영을 도왔다.

30년 전부터 세계 각국을 다니며 선교 네트워킹 및 현지 신학교 설립 사역을 해온 그는 특히 랄프 윈터 박사, 조동진 박사 등과 긴밀히 교제하며 국제 선교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시아선교협의회 제4차 대회 사무장(1986)을 시작으로 제3세계선교협의회 창립준비 및 창립대회 준비사무장(1988, 1989), 제2차 마닐라 로잔대회의 제3세계선교협의회 패널과 부스 총책임 사무장(1989), 아시아선교협의회 제5차 대회 일본 총무(1992), 제3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과 부회장(1999~2012), 국제선교전략 동경대회 준비위원장(2008~2010)으로 섬겼다.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사무총장(2002~2004) 및 대표회장, 공동회장(2004~2008)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전방개척선교를 위해 선교단체를 네트워킹하는 GNMS(Global Network of Mission Structures)의 국제총무로 활동하고 있다.

조 사무총장의 아내 최경련 선교사는 1997년부터 소그룹이지만 매주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열어왔다. 그를 잘 아는 한 선교사는 “사모님이 그렇게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게 됐다”고 했단다. 조 사무총장은 “기도의 터 위에서 선교가 이뤄지는데, 기도의 자원을 네트워크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제 선교네트워크와 함께 선교의 남은 과업 완수

“비서구권 선교운동들을 위해 대표적으로 일하는 협회로서 KWMA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길 바랍니다.”

GNMS 사역을 함께 해 온 바바라 윈터 여사(故 랄프 윈터 박사의 아내)는 조용중 선교사가 KWMA 사무총장 당선 후 이튿날 새벽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다. 전 세계 선교단체 네트워킹을 위해 글로벌 선교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있는 GNMS는 KWMA가 영향력은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가 많지 않은 한국선교의 DB화에도 앞장서 주면 좋겠다는 제안과 함께, 서구 선교 지도자들과 지금보다 더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앞서 KWMA에 제출한 비전계획서에서도 “그간 세계선교계와 함께 비서구권 선교운동을 진행해 오면서 맺어온 네트워크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와 더불어 선교의 남은 과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제선교 네트워크와의 교류, 새로운 비서구권 선교 세력의 건강한 선교운동 지원, 2020년까지 전문 분야별 국제 선교네트워크 모임을 유치하고 세계선교전략회의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선교전략회의에서는 2010년 국제선교전략 동경대회 이후 부족했던 후속 모임으로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프론티어 벤처스(Frontier Ventures, 구 USCWM) 등 국제 선교 네트워크의 현지 사역자 한 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필요하면 한국에서도 현지로 파견하여 한국교회 선교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선교운동과 소통하며 한국선교의 국제화를 이루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선임 선교사는 컨설팅 팀 청년 선교자원은 드래프트 시스템

그는 건강한 선교운동을 세계교회와 나누기 위해 우선 한국교회 선교의 좋은 모델들을 발굴하여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밝혔다. 경험과 학문을 두루 갖춘 명망 있는 선임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선교 컨설팅 팀을 만들어 각 국가의 좋은 선교 모델을 찾을 뿐 아니라, 선교전략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하고 멤버케어 지원도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중 사무총장

취임 인사에서도 밝혔던 “역사의 단절보다 계승을 믿는다”는 조 사무총장은 “요즘 선교 경력이 30년 이상 된 지도자급 선임 선교사들에게는 부담이 되는지 선교지에서 ‘나가달라’는 부탁을 하면서도, 직장 은퇴 후 파송된 평신도 자비량 시니어 선교사는 환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평신도 자비량 시니어 선교사들이 신학 전공으로 얻을 수 없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귀한 자원들인 것처럼, 30~40년간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학위 과정까지 마친 선임 선교사의 경험도 귀한 자원”이라며 “이 자원들이 잘 동원되고 쓰임받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젊은이들도 마음껏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원사역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앞으로 젊은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선교 구조에 들어와서 일하기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우리 시대처럼 명분 때문에 내 생애를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1~2년이라도 그들의 선교 헌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잘 활용할 방법을 찾아내야 추후 장기선교 헌신자들도 동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장기선교사가 아니면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조 사무총장이 제시한 방법은 선교 자원자만 불러오는 현 시스템뿐 아니라, 선교사가 될만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키우는 드래프트 시스템(Draft System)을 구축하는 것이다. 파송단체는 단지 개인 경력을 쌓기 위해 1~2년 헌신하는 단기사역자가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잠시 내려놓고 인생 일부를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겠다는 사람들에 대해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여 선교사 마인드와 개념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럴 때 청년들이 각 단체에 소속감도 생기고 후원자도 되며, 평신도 직장 선교사로서 사회 각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중에서 좋은 인재들에게는 도전을 하여 장기선교사로 동원할 수도 있다고 봤다.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출신인 그의 아들은 미국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1년 동안 몽골국제대학 교수로 헌신해 영어와 비즈니스를 가르쳤다. 그를 따라 다른 후배들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1년씩 선교지에서 봉사하고 왔다고 한다. 이처럼 짧지만 선교현장을 경험한 청년 선교자원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하며 드래프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다음세대 선교동원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그는 보았다.

이민자로서 경험 한국선교에 도움 되었으면

조 사무총장은 원래 사무총장 후보 등록 마감 전날까지도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수차례 권유도 받았지만, 한국에도 좋은 지도자들이 많으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세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고사했다고 한다. 그는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세계를 다니다 4년 전 다시 미국에 정착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30일 후보 마감 당일, 베트남에서 강의 사역 중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으니 지원서라도 내보자’며 서류를 제출했다. 그때만 해도 ‘선출되지 않아도 감사하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사역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다. 원래는 곧장 미국의 집으로 돌아가서 막 태어난 첫 손자도 만나고, 온 가족과 워싱턴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축복의 길로 그를 인도하셨다. 연휴를 며칠 앞두고 KWMA 법인이사회에서 대면 인터뷰를 요청해 오자, 그는 미국에서 짐도 챙기지 못하고 가족과 주일 아침 예배만 드리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 그리고 그날부터 음력설 연휴 전까지 계속 한국에 머물게 됐다.

조 사무총장은 “한국선교의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고민했다”며 “이민자로서 제 경험이 한국선교에 도움이 되길 바라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멤버케어 사역이다. “저를 파송한 교회를 비롯하여 한인교회가 선교사 파송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을 때, 선교사 멤버케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험했다”며 “선교 경험이 있는 선배가 멤버케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내 최경련 선교사도 상담학 박사로, 이미 수십 년간 세계 각국에서 상담을 하며 멤버케어 사역을 해 왔다. 현재는 미국 LA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 정기 독서모임, 중보기도모임 등을 열어 멤버케어를 하고 있다. 최 선교사는 앞으로 조 사무총장을 도와 한국교회 멤버케어 사역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조용중 사무총장은 타겟 2030(Target 2030, 2030년까지 10만 선교 정병 파송)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팔로우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이 일에 전력투구할 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기도 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국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300용사와 세계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7천 그룹을 찾아 네트워킹하고, 기도가 서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며 “이 일이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리에게 연락 달라”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www.saseducation.weebly.com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학교, 어학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데이케어/프리스쿨, I-20신청, 연방인가, 온라인교육사이트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목회자를 위한 Audio Book Club
Audio Drama Bible 활용 세미나

*주관 :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
*협력 : LA 동부교역자 협의회, SU North America(미주 성서유니온)
*강사 : 김도현 교수, 박동희 권사

*대상 : 목회자 및 신학생
*일시 : 3월 2일(목), 10:00am~2:30pm
*일정 : 1부(10:00~12:00pm) : Audio Drama Bible (김도현 교수)
1) Public Reading of Scripture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2) Audio Drama Bible (소개와 활용)
3) 12:00~1:00pm (점심식사와 교제)
2부(1:00~2:30pm) : Just Show Up (박동희 선교사)
1) Just Show Up (소개 및 활용)
2) 묵상과 나눔과 오디오 북 활용의 실제


강사 : 김도현 교수
- 콜로라도 크리스찬 대학 신약학 교수
- Boulder Korean Church 담임 목사
- Kosta USA 공동 대표


강사 : 박동희 권사
- JSU Korea Ambassador
- SU Korea 협력 선교사
- 미주 성서 유니온 이사(SUNA)

*장소 :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오디오 북 도서와 점심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세미나 신청안내: 이메일 : info@sunhanchurch.com T.(909)591-6500(선한목자교회)

ECO A Covenant Order of Evangelical Presbyterians
선한목자교회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나성영락교회가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 잇도록”

[인터뷰] 부임 앞둔 박은성 목사의 기대와 소망

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된 박은성 목사(41). 40대 초반인 그의 청빙 소식에 미주 한인 교계는 물론 한국 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1973년 LA에서 설립된 나성영락교회는 이처럼 젊은 리더십과 함께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본지는 오는 2월 19일 나성영락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박 목사로부터 소감과 비전을 들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청빙 과정에서 수고하신 나성영락교회 교인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며 “저 역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가진, 상징성이 큰 교회로 부임하는 만큼 부담도 있지만 동시에 기대와 설렘이 있다”고 했다.

박 목사는 이미 미주 한인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약 10년 동안 사역한 경험이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약 5년 간 부교역자로 있었다. 한인교회 경험이 더 많은 셈이다.

그는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교포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선은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싶다”며 “또한 한인교회가 가진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잘 지켜가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성영락교회에 기대하시는 것들을 이뤄갈 것”이라고 했다.

박 목사는 “나성영락교회를 향한 미국 한인사회의 기대, 나아가 한국 교회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에 부응해야 할 책임이 저와 교회에 주어졌다. 특별히 세대와 세대를 잇고, 지역과 지역, 미국과 한국을 잇는 다리로서 나성영락교회가 더욱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에 부임한 후 나성영락교회가 가진 보편성과 특수성을 잘 파악해야겠지만, 일단은 균형에 초점을 두고 싶다”면서 “전도와 선교뿐 아니라 섬김과 봉사 역시 균형있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라는 표어에 걸맞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나성영락교회가 최근까지 다소 내홍을 겪었던 것과 관련해선 “많이 안정됐다. 어느 교회든 내부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 동안의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나성영락교회에 필요했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며 “이번 청빙도 그런 점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박은성 목사는 “나성영락교회에 가보니 익히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특별히 나성영락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 교인들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박은성 목사가 지난 신년 첫 주일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설교하던 모습 ⓒwww.youngnak.com



나성순복음교회에서 GBC 후원의 밤 예배가 있었다.

“GBC 사역 위해 여러분의 기도 꼭 필요”

후원의 밤 예배 드리며 함께 기도

GBC 미주복음방송 후원의 밤 예배가 10일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있었다.

이날은 고승희 목사(GBC 상임이사, 아름다운교회 담임)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삼하24:10-25)”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고 목사는 “이방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번제와 화목제로 인해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멈추었다”면서 “현재 미국은 동성애, 테러 등 각종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라우나와 같은 한인들이 믿음을 세우면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 목사는 “GBC가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특히 그는 성도들을 향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라”고 축복했다.

나성순복음교회 금요예배 시간에 함께 드린 이 예배에서는 GBC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GBC 방송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 GBC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준형 기자

“전 세계가 우리의 선교지”

GMS 선교사 훈련 위한 미주 OMTC 열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세계선교회 GMS(Global Mission Society)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갈 한인 선교사 발굴을 위해 미주 OMTC(Oversea Missionary Training Course) 제4기를 시작했다.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LA 컴미션(1520 James M. Wood Bl. Los Angeles CA90015)에서 10명이 3주간 합숙하면서 고강도의 훈련을 받고 있다.

후보생들은 GMS 이사, 선교학 교수, 현장 선교사 등 수준 높은 강사진들로부터 선교신학, 리더십, 후원교회 개발, 타문화권 이해, 세계선교 동향, 21세기 선교전략 등 선교의 필수 과목들을 배우게 된다. 이번 제4기에서는 박무용 OMTC 이사장, 이병구 선교사, 박기호 교수, 이광길 교수, 이재환 선교사, 김정한 선교사, 김에녹 교수, 조나단 강 박사, 김기동 목사 등이 강의한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GMS 선교사 파송 자격을 얻게 되고 파송교회가 있거나, 자비량 선교를 원하면 바로 임명과 파송을 받는다.

훈련을 마친 이들은 3월 2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교 사명을 확인하는 〈사명 선언문〉을 작성한 후 수료식과 선교사 임명식에 참여하게 된다.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는 동일한 장소에서 열리는 GMS 미주지부 총회에도 참석한다.

OMTC 훈련원장 이병구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건강한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선교사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파송단체를 통한 훈련과 파송이 필수”라며 “미주 OMTC 제4기는 ‘만인제사장’이란 개념처럼 ‘만인선교사’를 키워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준형 기자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6



독일교회의 난민 사역을 보면서

필자가 이슬람권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만났던 분들 중에 독일 개신교회 연합회 대표들이 있었다. 내가 남부 도시 국경쪽 마르딘이라는 1000년 넘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 엔델(가명)이라는 한 평신도 사역자 가정을 초대받았다. 그때 그 집에서 터키 서부 도시 이즈밀(코카사스 지역)에서 사역하는 한 독일 선교사가 안내하여 동행한 세 분의 독일교회 대표들과 만났다.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임을 강하게 느꼈다.

같이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엔델의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나누면서 미국의 한인교회 그리고 독일교회 등의 소식을 주고 받았다. 그들은 독일교회연합이 국경으로 몰여든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모은 헌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 사역을 담당하는 엔델을 만나러 온 것이다.

식사 후 가벼운 티타임을 가지고 그들은 곧바로 의논하기 시작했다. 그 액수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구호품을 직접 사는 것이 좋은지, 지역은 어디로 할건지, 대상은 몇 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성공적인 사역이라 판단되면 지속적으로 헌금을 마련할 것이라든지 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들으며 나는 독일교회의 난민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었다.

독일교회의 연합과 사랑의 모습을 너무도 배우고 싶었다. 아! 그러고 보면 틸만 선교사같은 순교자가 우연히 독일교회에서 배출된 것이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많은 의견과 대화를 나눈 후 대표들은 평신도 사역자인 엔델에게 그 모든 구호사역의 집행을 맡길 것인가 결정해야 했다.

한 분이 엔델의 간증을 부탁했다. 엔델이 아내와 자녀들 셋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는 터키 국적 쿠르드인이고, 젊은 시절 쿠르드 테러단체인 페케케에 가입하여 폭탄 설치 폭파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그곳에서 성경을 보게 되었고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는 중 알라를 위한 테러단체가 너무 무자비한 살생을 일삼는 것을 보며 회의에 빠져, 목숨을 건 탈출을 했고 곧바로 이라크군에게 잡혀 옥살이를 하다가 터키로 이송되어 있던 중 극적으로 석방됐다. 고향인 디야르바르크에 갔는데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이 보여, 그곳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훈련받고 난민을 섬기기 위해 마르딘으로 파송받은 이야기를 듣는 중 모두의 눈에 눈물들이 흘렀다.

하나님의 전적 인도하심을 느꼈으며 독일교회 대표들은 잠시 동안 자기들만의 의논시간을 가진 후 엔델에게 모든 사역의 계획과 집행을 맡겼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ITN 터키 디렉터인 피터 김 목사에게 기도회 인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는 자정이 넘는 늦은 시간까지 합심하여 엔델을 위하여, 독일교회를 위하여,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했다. 참으로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필자는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독일교회 대표들을 만나, 독일교회의 난민 사역 열정을 확인했다.



임직예배를 마친 후 임직자들과 안수위원들이 축복의 손을 내밀고 함께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길"

샘물교회 개척 후 첫 임직예배 드려

남침례회(SBC)에 속한 샘물교회(담임 정기정 목사)가 지난 2월 12일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2명의 협동장로, 2명의 안수집사, 5명의 협동안수집사, 2명의 협동권사, 1명의 명예권사가 임직했다. 5명의 서리집사도 임명을 받았다.

샘물교회는 개척 후 처음 드린 임직예배에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공동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설교를 전한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이날 '사도행전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부흥 이전에 베드로의 개인적인 부르심과 회심,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임직받는 자들은 내면으로부터 죄사함의 감격을 갖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사역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변은광 목사의 시취보고가 있었고 김송식, 민승배 목사가 권면하고 피터 최 목사가 축사했다.

샘물교회는 2016년 1월 17일 라미라다 지역에서 개척 예배를 드린 후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

주소) 15151 Cordova Rd.
La Mirada, CA 90638
문의) 213-598-5323

기독교 오디오북을 목회에 활용하자

〈목회자를 위한 오디오북 클럽 및 오디오 드라마 바이블 활용 세미나〉가 오는 3월 2일 지앤엠(Grace & Mercy) 글로벌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린다. 목회자들이 오디오북 클럽을 목회에 활용하는 방법을 콜로라도 크리스천 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김도현 목사와 성서유니온 미주 대표이면서 코스타 강사인 박동희 권사가 강의한다.

오디오북 클럽은 금세기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책이 녹음된 오디오북을 들은 후 함께 토론하고 신앙적 깨달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드라마 바이블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디오 성경을 함께 듣고 QT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목회에 효과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세미나의 목표이며 LA동부교역자협의회와 미주 성서유니온이 협력하고 있다.

세미나 장소는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담임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91709)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계속되며 교재와 점심 식사가 무료로 제공된다. 참석을 원하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문의) 909-591-6500

한인 선교사 일행 4명 中 공안에 체포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등 선교사 일행 4명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 공안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모 호텔에 투숙 중이던 한국계 미국인 목사와 일행 4명이 사복 공안 원들에 체포됐으며, 주중 미국 대사관이 현재 미국인 목사에 대한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체포된 기독교인들은 미국 국적의 박 모 목사, 중국인 김 모 전도사, 중국인 손 모 전도사, 한국인 김 모 씨로 이들은 모두 순수한 선교 목적으로 활동하던 이들"이라고 했다.

이어 "일행 중 박 목사는 지난 주 한국을 출발해 중국에 도착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연길 공항으로 출발하기 직전 2월 9일 오전 10시 30분 경 호텔에 들이닥친 사복 공안에 체포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적의 박 목사는 수년 전부터 중국 연길 등지에 선교를 목적으로 중국을 자주 왕래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인 A씨가 지난 9일 중국 연길에서 중국 당국에 출입국 관련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돼 행정구류 5일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 선양 총영사관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파악 중"이라며 "중국 공안 당국에 김 씨 영사 면회를 요청하고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계속 드리고픈 예물

출애굽기 36:1-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이 조금만 더 나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 봉사, 구제, 전도하며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준은 죽을 때까지 정함이 없는 물질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라서 그 사람은 밤낮 생각은 있다고 말은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실천을 재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까지도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그분이 세우신 직분에 충실하고, 맡기신 직책에 성과로 섬김을 다하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함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7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약 20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노예생활을 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문서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라 호적이 없었고, 호적 없는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른 새벽에 해도 뜨기 전에 기상 나팔 소리로 일어나야 하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아침도 먹는 둥, 마는 둥 일자리로 끌려가서 해가 져서 일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열심히 원수들의 멍에를 매고 채찍에 얻어 맞으면서 그들이 원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은 참으로 기나긴 세월입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탄압의 압제와 횡포로 여러 가지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농사 지어 놓으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머슴이 쓰는 방의 구들장은 다 캐내어 거기 숨긴 곡식을 빼앗아 갔는가하면 심지어 놋쇠 요강조차도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가 당한 36년이란 세월도 그리 짧지 않은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었습니다. 열배도 넘는 4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다가 성질이 거칠거나 주인 비위를 자주 건드리게 되면 다른 애굽 사람에게 팔아먹습니다. 우리 집의 히브리인 아무개를 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면 되겠느냐고 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 값만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인의 몸값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신세가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 시비할 것 없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형편이 자신이 하나님도 몰라보고 예수님도 못 믿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기만 서두르고 힘써왔기 때문이라고 깨달으며, 오늘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겹도록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은 회개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바로 설 수 있다면 지난날의 치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의 값어치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의 신세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시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는 천사가 다니며 다 죽였으나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고 문안에 있는 방에서 양고기를 먹고 있을 때에 심판의 천사가 뛰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명령받은 천사가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에 양의 피를 보고 안들어가고 뛰어넘어 갔다고해서 유월절(踰越節)입니다. 이 일 후 애굽 사람들은 자기 집 속주머니에 있던 금이나 은, 값 나갈 만한 것을 전부 다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며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엄청난 재물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13대 전 조상 적부터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일해주고 한 푼도 못 받았던 품삯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다 받아내게 해주셨던 겁니다. 어제만 해도 인간 이하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하룻밤 자고 나니 형편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엮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너무 많아, 그것을 실을 수레와 나귀까지도 함께 얻어 애굽을 나오는 그때의 기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고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이 목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눈에 보이도록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5장 4절~1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베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그 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공교히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했습니다.

참 묘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교회에 어떤 일을 지시하실 때는 두 가지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필요한 자재, 재료인 돈이라는 얘깁니다. 또 하나는 그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것을 이루어 만들고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술자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아무리 많이 가져다 놔도 그것을 가지고 재료를 준비해서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성막을 세워 드릴 수 있게 할 기술자가 없으면 아무리 금덩어리가 많이 모아졌어도 성막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자도 준비돼 있고 재원도 준비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출36:29)으로 기술자들이 성막을 세우고도 남을 지경으로 연하여 예물을 가져옴으로 그들은 모세에게 예물 받아 놓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을 넉넉히 짓고 남음이 있겠으니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발 하나님 앞에 그만 갖다 드리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기술자들 같으면 뒤로 빼돌리면서 계속 가져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신앙은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아주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설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픈 예물로 정성을 아끼지 아니하게 되었던가를 생각해 봅시다.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고 동전 한 푼 없던 알거지가 벼락부자가 되고 나니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가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음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만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하다가 나와 내 식구가 필요한 것 먹고, 입고 거처하고 하는 생활에 정당하게 쓸 권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젠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짝사랑 하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믿음생활을 착실히 해 봅시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려가는 그들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챙겨줘서 가지고 나온 것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가면 자기들이 수고 아니하고 지어논 집에서 다 갖추어 놓은 세간, 도구쓰면서 또 남들이 지어놓은 농사 거두어서 그해는 추수만 해먹어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확신하는 내세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타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I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쇼설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닮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닮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우리들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목자,
담임목사님께서 성역에서 은퇴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하여 우리 양무리들을 하나님 중심, 성경말씀 중심,
은혜중심으로 이끌어 가실 선한 목자 담임목사님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을 받으시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행16:9)

담 임 목 사 님 을 모 십 시 다 .

California의 UC Merced가 있는 대학도시이며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관문 (Yosemite Gateway)인
Merced시의 **멀세드 사랑교회**

1. 제출서류 : PIF(Personal Information File)과 가족사진,
2분의 추천서, Faith Statement(신앙고백)와 목회비전
2. 제 출 처 : 500 Buena Vista Dr. Merced, CA 95348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3. 제출기간 : 2월 28일(화)
4. 문 의 :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T.(209)205-8546

멀세드 사랑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장 안석환 장로 및 온교인 일동

T.(209) 205-8546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자들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1997년 학위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저는 IMF의 지도를 받는 국가적인 환란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오래된 서민 아파트에서 살았던 저는 귀국 후 양가 부모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작은 전세방을 얻어서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건강하니까 물불을 안 가리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1998년에 어머니께서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환란은 가정의 사랑하는 사람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병상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 털모자를 쓰신 어머니는 아버지의 도움 속에서 병을 이겨내시고, 2004년까지 6년을 더 사셨습니다. 새 천년을 넘어 들어오며, 작은 아버지가 위암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003년의 소천에 이르기까지 작은 아버지는 괴로운 투병을 하셨습니다.

집안의 어른 두 분이 병마로 해를 이어서 소천하셨습니다. 병마와 죽음은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는 외견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 병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암 투병은 고통의 극에까지 가는 일이었지만, 병의 마지막 모퉁이에서 작은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없으셨습니다. 누님은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임종 전에 의사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환란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숨가쁘고 단내 나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큰 환란이란 강도에 있어서 심각하고, 길이에 있어서 지리한 환란을 의미합니다. 큰 환란은 전쟁이나 병마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상실감, 혹은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여러 종류의 중대한 환경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여 나온다고 말씀합니다.(계7:9) 이는 영적 승리자가 대환란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개선하는 흰옷 입은 성도는 일곱 인의 환란, 일곱 나팔의 환란 그리고 일곱 대접의 환란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한 성결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종말에 이를수록 격해지는 환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환란을 통과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후 환란은 더욱 심각하여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환란이 엄중하여질수록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양 예수의 능력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잠시 세상의 환란을 견디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주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며, 우리의 앞길에 생수의 샘물이 지속적으로 터질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실 예수님이 천국문에서 기다리십니다.

뺀질이와 반짝이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저도 귀밑에 내린 서리를 가리기 위해서 염색을 합니다. 옛날에는 별 의미 없던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는 인사들이 지금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패기만만한 '젊은 목사'인데, 새로 베델에 들어오시는 동역자들을 보면 제가 더이상 '젊은 목사'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목사가 대외적인 모임에서 어떤 순서를 맡느냐에 따라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성경봉독을 맡습니다. 조금 관록이 붙으면 기도 순서를 맡고, 전성기에는 설교를 부탁 받습니다. 은퇴 즈음에는 축사나 권면을 부탁 받고, 그러다가 축도 순서를 맡기 시작하면, 무덤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한 교회 행사에 초대되어 축사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아직 축도는 아닙니다.

젊었을 때 내 방에 붙어 있던 포스터 중에는 용쟁호투의 카리스마 넘치는 이소룡이 있었고, '왜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나?' 파란 눈의 알랑드롱 포스터를 보며 비애에 잠긴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농구를 너무 좋아해서 필라델피아의 닥터 제이, 그리고 농구의 황제 마이클 조던 등 운동선수들의 포스터가 벽에 걸리곤 했습니다.

지금은 벽에 거는 것이 귀찮아 거라지에 액자들이 그냥 쌓여 있습니다.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이 거실에 놓여있지만 지금의 현실과 거리감이 느껴져 일부러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늘어가는 얼굴의 주름, 반면에 줄어가는 머리숱은 거울 보기가 무서우면서도 거울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변화는 기정 사실입니다. 육신적인 나이도 막을 수 없지만, 신앙 안에서 거듭나 연륜이 쌓여가는 변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변화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변한다고 합니다. 무서운 얼굴이 착한 얼굴이 됩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미소의 선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아니라 예술적인 선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은혜 받기 전에는 얼굴이 금강석 같이 반들반들합니다. 아니, 뺀질뺀질이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뺀질이가 반짝이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얼룩이 남겨져 있는 뺀질이의 주름을 펴주는 은혜의 보톡스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입니다. 예배할 때 눈물이 있으면 죄를 씻는 은혜로 계속 반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말라버린 눈물과 얼굴에는 번들거리는 교만만 남습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의 주름을 다림질합니다. 오늘은 비록 염색을 했지만 나중에는 반짝이는 은혜의 비췸을 받고 희어진 머리카락을 드러내며 씩씩하게 축도하러 가는 날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일하시는 하나님



김 성 민 목사
팰리세이드교회

80년대 중반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3개월간의 초행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 외국친구들과 3개월을 함께 생활하는 일부터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전도지를 들고 집과 집을 방문하는 것까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집 생각도 많이 났고, 배도 고팠으며, 모든 것이 불편했다. 그렇게 전도지를 들고 돌아다닌 것이 거의 700여 마을이었다.

하지만 그 여행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그 이유는 선교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선교사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으며, 평생 어디에 있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후에도 기회만 되면 단기 선교팀에 합세하여 여름을 보내곤 했다.

나는 그해 프랑스 단기 선교가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년 전 늘 내 마음에 있던 그 마을들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때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25년 전 전도할 때 우리 팀에게 종종 식사를 대접해 준 부부를 만났기 때문이다. 서로를 알아본 순간 너무 기뻐서 오랫동안 끌어안았고 곧 그분들이 사는 집으로 이동했다.

부부는 우리 전도팀이 전도지를 돌리며 다녀간 후에 1,000여 명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는 한 가정밖에 없던 그곳에 22명의 결신자가 생겼다고 말해 주었다. 이제는 모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다시 한 가정이 되었지만 그 당시 그분 댁 마루에서 성경공부를 오랫동안 했었노라고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주 오래 된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25년 전 내가 직접 써 주었던 나의 이름과 집 주소였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었노라고 말했다. 나와 나의 아내는 놀라서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같은 못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계셨다는 사실 때문이다.

만남을 마치고 나오기 전, 너무나 서운해서 찬양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마루에 있는 낡은 피아노 반주로 25년 전 그곳에서 배운 서투른 불어 찬양을 얼마나 큰 소리로 했는지 모른다.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 복음의 승리가 얼마나 마음 중심에 확신으로 오던지, 얼마나 좋으시고 성실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이신지 깨닫고 또 깨달았다.

그 뒤로 나도 그 부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30여 년 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깨달았다. 그 여름에 주신 감격이 지난 30년 동안 그곳은 그곳대로, 나에게는 현재에도 강하게 역사하시며 복음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민 목회를 하면서 행사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사 후에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개인의 믿음 생활이 그렇고, 교회 생활이 그럴 것이며, 복음전파의 삶이 그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일하심을 믿는다. 낙심하지도 또한 포기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전하자.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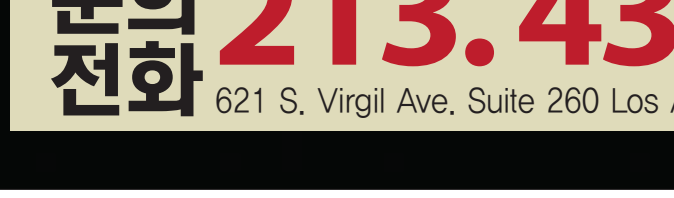
프로지 골드

PRO-Z GOLD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실체' 소개했다고 교사 징계?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기하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27개 시민단체가 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옹호·조장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동성애의 실체를 소개하자 한 학생이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학생인권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교사가 보여준 자료 일체와 학교의 조치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으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차단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됐다"며 "이렇게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및 동성간 성행위와 관련해 선량한 성도덕 관점에서 일관되게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압도적인 다수 국민들도 동성간 성행위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이를 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성간 성행위를 비판했다 해서 양심·표현·신앙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부당하고, 동성간 성행위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국가적으로 심각한 보건적·도덕적 유해함을 유발하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또한 동성간 성행위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므로, 동성간 성행위를 반대해 선량한 성도덕을 유지하려는 건전한 교사들을 징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근거 법령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를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함으로써, 동성애를 정상이라 공인하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있다"며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라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네 번에 걸친 판결과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잘못된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공권력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며 "다양한 개인의 도덕관·윤리관·가치관 등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동성애 성행위가 법적인 보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행위인지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므로 "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선량한 양심에 근거한 교권을 심대하게 역차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다수 국민들이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조례로 제정하여 옹호·조장하는 것은 선량한 성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갖는 상당수 교사와 학생들을 법을 어기는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연합 제공

시민단체들은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폐해로 부도덕한 동성애가 급속히 확산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지 않겠느냐"며 "에이즈를 비롯한 심각한 보건적·윤리적·재정적 수많은 폐해들이 급증하고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전가된다. 이렇게 반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차별금지 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 중 단 20개국 정도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전 세계 나머지 90%가 넘는 국가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가는 70개국이 넘는다"며 "특히 러시아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수 없도록 '동성애 선전금지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매년 1만 2천명씩 사망하고 있어 동성애를 법으로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동성애는 한 나라의 존망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소개한 2011년 미국질병관리본부센터(CDC) 통계자료에 따르면, HIV(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미국 10대 청소년들 10명 중 9명의 원인이 동성애라고 한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여 년간 동성애로 말미암은 청소년 에이즈(AIDS) 감염자 수가 20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각 보건소에 배포한 '2015 에이즈 관리지침'에서도, 동성애자들은 에이즈(AIDS) 감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돼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토록 동성애가 위험하다면,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서 동성애를 예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중국과 일본,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의 주범'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만 '인권'을 핑계로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침묵하고 있다"며 "덕분에 에이즈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현재는 전 세계 1위 '최대 에이즈 감염 급증국'이라는 불명예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또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있다 해도, 일부 서구 사회들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마냥 따라가야 하겠는가"라며 "대한민국도 이런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먼저 합법화된 나라들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영국, 독일처럼 포르노, 마약, 근친상간, 일부다처, 수간도 합법화해야 하겠는가"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바르고 건전한 교사들을 억압한다면, 서울뿐아니라 전국의 학부모들과 건전한 사고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대웅 기자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만이 살 길"

박만수 목사, 종로포럼 첫 발표 통해 '아사 왕의 종교개혁' 설명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성경속 개혁'에서 한국교회 개혁의 길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카페 다사랑에서 열린 종로포럼 첫 포럼에서는 대표 박만수 목사(성은교회)가 '종교개혁만이 살 길이다: 아사 왕의 종교개혁(대하14:7-12, 15:16-18)'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목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도 한국 기독교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탓 아니겠는가"라며 "열왕기와 역대기 전반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강대국을 의지할 때는 고난의 연속이었으나, 종교개혁을 행한 왕들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백성들에게까지 축복이 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사 왕은 통치 41년 중 처음 10년은 평범하고 편안했지만, 11년째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 100만 명과 병거 300승이 쳐들어오면서 위기에 처했다"며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아사 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강조했다.

박만수 목사는 "아사 왕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며 "모든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으며, 우상을 숭배하던 어머니의 황후 지위를 폐할 만큼 대단한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만수 목사

박 목사는 아사 왕 종교개혁의 원동력으로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대하14:11)'를 꼽았다. 그는 "부르짖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이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시86:7, 91:15, 렘33:3)을 의미한다"며 "요한복음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구절이 있는데(요4:43-47), 여기서 '청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타오', 즉 부르짖다, 탄원하다, 울부짖다는 말"이라고 소개했다.

둘째로 '계속적인 기도(눅18:1-7)'이다. 그는 "기도하다 중단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낙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목사는 "아사 왕은 구스와 4년 동안이나 전쟁했는데, 우리나라의 6.25에서 알 수 있듯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가 피폐해진다"며 "아사는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으며, 그때 주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대하 14:7)"고 했다.

박만수 목사는 "오늘날 우리나라는 사상과 여론의 분열로 국가와 교회, 그리고 개인이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화위복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처럼 종교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목사는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모토로, 성경에서 종교개혁의 해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종로포럼은 국가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모임으로, 향후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도록 다양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대웅 기자



교회 안의 정치적 이견, 어떻게 다루나?

월간 〈목회와 신학〉에 김덕수 교수 기고

월간 〈목회와 신학〉 2월호가 '교회 안의 정치적 이견,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에 대한 칼럼을 게재했다. 김덕수 교수(백석대)는 이러한 제목의 칼럼에서 "교회 안의 정치적 이견과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신념 차이는 매우 다루기 힘든 과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와 신학자도 별반 다르지 않다"며 "같은 성경을 대하면서, 신학자들도 정치적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우리의 정치적 신념은 자신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뢰성에 관계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르면 어떤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어도 거부하게 만든다"며 "기독교인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면 더욱 완고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면에서는 종교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 정치적 신념일 수 있다"며 "그 신념으로 인해 같은 기독교인들끼리도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덕수 교수는 "같은 신학 사조를 갖고 있거나 같은 개혁파 진영에 속해 있어도 시국에 대해 갖는 관점은 다를 수 있고, 이는 성경을 잘 아는 목회자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라며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목회자로서 교회 안의 정치적 이견으로 생긴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갈등이 발생하면 목회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요청받는데, 정치적 이견 상황에서 피해야 할 것은 양쪽 중 어느 한 편을 옹호하거나,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려 하는 등 재판장 행세를 하려는 시도"라며 "이는 갈등을 증폭시키거나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누군가 정치적 이견을 표현하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다"고 했다.

특히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지?'라고 쉽게 내뱉은 나의 말이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나만 옳고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나,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돌릴 뿐 아니라 쉽게 악마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목회자들은 '내 설교를 듣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됐듯, 내가 말하면 정치적 이견을 가진 사람들도 금방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러나 목회를 오래 했거나 종종 정치적 관점을 설교 중 표현해 본 목회자라면 익히 알겠지만, 교인들의 정치적 이견은 설교 중 우리가 잠시 하는 몇 마디 말로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진영에 있는가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이견을 보이는 것은,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마저 신학보다는 각자 걸어온 오랜 인생의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고, 각자의 기질과 성향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목회자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른 메시지를 전할 때, 청중은 비정치적 정보로 자극을 받았을 때에 비해 자기 방호 기재를 강하게 작동시키며 거부한다. 이는 정치적 신념을 바꾸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바꾸는 것만큼 어렵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치적으로 보수화되는 특성을 보이므로, 목회자라도 의도적으로 마음을 열고 약자에게 공감하려 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점차 기득권 중심으로 보수화 성향을 띠게 될 것"이라며 "그러면 교회 안의 정치적 이견이 생겼을 때 진보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에 편향될 것이 자명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럴 경우 목회자도 이견에 따른 갈등 조정에서 객관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깨어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목회는 힘들어진다"며 "따라서 의도적으로 넓은 마음, 열려 있는 마음으로 개혁과 혁신을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목회자는 설교 중 좌편향·우편향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목회자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따르도록 강요해선 안 되고,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힘이 있는 쪽의 눈치를 보며 끌려가서도 안 된다"며 "설교자가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력하게 제시하거나, 교회의 힘 있는 자들 편에 서서 동조하는 것은 갈등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런 설교는 의도치 않은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목회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성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최종 결정을 대신 내려주어서도 안 된다"며 "각자가 책임 있게 결정하도록 목회자는 성경 말씀으로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했다. 또 "목회자는 인품과 영성에 있어 항상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을 평상시에 분명히 해야 한다"며 "첫째로 성경에 대한 높은 관점 즉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어떤 사상·신념·세계관보다 우위에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둘째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심어주는 설교를 해야 하며, 셋째로 우리가 부딪친 상황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만 듣고 변할 수 있다. 목회자의 정치적 주장에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 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문제는 성경 말씀을 귀납적으로 연구해 성경의 원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는 자신의 성경 이해와 세계관을 '성경을 빙자해' 주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항상 기도하고 바른 석의 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 칼럼은 '교회 AND 정치' 특집 중 하나로 게재됐다. 〈목회와 신학〉 2월호에서는 이 외에도 '교회·목회자의 정치 참여' 관련 설문조사, 구약학자 윌럼 반 게메렌 박사 인터뷰, 교회 재정과 목회자 납세, 4050 목회자 앙케이트, 201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 김경진 교수의 '좋은 설교 vs 나쁜 설교' 등의 콘텐츠가 담겼다.

이대웅 기자

유기성 목사 "너무나 부끄럽고…"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가 '너무나 부끄럽고 괴로운 일'을 나눴다. 교회 앞에서 노숙자가 동사(凍死)한 사실을 고백한 것. 유 목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어젯밤 교회 기도회에서 소란이 있었다. 교회 근처 공원에서 노숙하는 두 분 중 한 분이 지난 밤 동사하신 것 같다"며 "그 중 한 분이 기도회 자리에 오셔서 큰 소리를 치셨다"고 전했다.


유기성 목사

그 '큰 소리'는 다음과 같다. "교회 앞에서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그래도 여기가 교회입니까? 내 동생이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이 얼어 죽어가는데, 교회가 집 하나 마련해 주지 못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유 목사는 "제가 춥다는 생각만 했지 그 분들을 살펴 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 분들은 매일 교회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지만, 식사만 제공해 드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말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목사는 "(교회가 속한) 성남의 어려운 동네를 택하여 집중해서 돕고 있지만, 교회 옆에서 얼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어제 기도회 내내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기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 목사는 "노숙인들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에 따른 예산 문제는 또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난감하지만, 요즘 주님께서 이런 저런 일들을 통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는 말로 이 글을 마무리 했다.

이대웅 기자

교회맞선교회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박영천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서건오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쉽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11:00
2부예배 오전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분 (화-금)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탈북민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김요셉 담임목사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5:30(월~금)
금요성령집회 : 저녁 8:00 새언약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강양규 담임목사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 (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동부, 팜스프링스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872-2405 교회 ,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92405
T.(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오전 11시 (본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요예배 오후 7: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 KPCA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후 1: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EM 1부 9:30/ 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구원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EM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후 12:30
유년부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EM 오후 1: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Awana 오후 8:00(금)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9:30
주일 3부 오전 11: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EM/YOUTH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새벽 예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금요예마기도회 오후 7:45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34) 229-6597 / cmc-12.com / yesuin12@gmail.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비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LA예배처소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3460 Wilshire Blvd, Ste 700, LA, CA 90010
Tel: (213) 232-3163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애틀랜타교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 탐방 계획을 발표했다.

애틀랜타교협, 회원 교회 방문

전도 활성화 위한 리소스 제공하고 함께 기도

애틀랜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송상철 목사)가 최근 회원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교협은 2017년 사업계획 중 하나로 회원교회 중 20여개 교회를 선정해 교회 탐방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교협 탐방분과위원장 김성식 장로는 "첫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탐방지로 선정된 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행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지역교회 전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4영리', '성령' 등의 소책자 1,000권을 마련해 각 교회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송상철 회장은 "교협 회원교회를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교회도 돌아가며 탐방을 하려고 한다. 목회자가 아닌 각 교회 장로들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김성식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교회가 함께 부흥,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각 교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겠다"고 전했다. 윤수영 기자



어린양개혁교회가 피어몬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난 5일 첫 주일예배를 드렸다. 사진은 담임 류승례 목사(우)와 2세 담당 임그레이스 목사(좌)

어린양개혁교회 피어몬트 지역 이전… 새 사역 기대

한인교회와 미국교회의 아름다운 협력

어린양개혁교회(담임 류승례 목사·2세 담당 임그레이스 목사)가 피어몬트 지역으로 이전, 지난 5일 첫 주일예배를 드리고 피어몬트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했다. 타판지 브릿지 부근에 위치해 있는 피어몬트 지역은 빼어난 자연환경으로 인해 휴양지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예술·문화계 종사자들이 밀집해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어린양개혁교회는 앞으로 같은 RCA 교단 소속의 미국교회인 피어몬트리폼드교회의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며 오전 9시에 주일예배를 드린다. 피어몬트리폼드교회는 1839년에 세워진 역사적인 교회다.

어린양개혁교회가 이전 첫 예배를 드린 지난 5일에는 특별히 미국회중과 한인회중이 연합해서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는 미국교회 담임인 존 밴든 오에버 목사와 어린양개혁교회 류승례 목사와 임그레이스 목사가 나란히 집례를 했다. 특히 예배 후에는 피어몬트리폼드교회 성도들이 식사를 준비해 한인교회를 환영하면서 미국회중과 한인회중이 친교로 함께 어울리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됐다.

피어몬트리폼드교회는 담임목사가 외부 일정으로 주일예배시 공석일 경우, 특별히 한인교회인 어린양개혁교회의 류승례 목사와 임그레이스 목사가 주일예배 집례를 직접 맡아 설교를 하는 등 이전부터 한인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던 교회다. 이에 이번 어린양개혁교회 이전은 한인교회와 예배장소를 함께 사용하는 미국교회와의 좋은 협력 모델을 보여줄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담임 류승례 목사는 "많은 회중을 위한 목회를 지향하기보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온전히 돌보는 목회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세 담당 임그레이스 목사도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더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며 2세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상담사역 등 아웃리치 사역도 계속 돼

어린양개혁교회는 그동안 한 장소에 국한된 목회를 펼치지 않고 24시간 상담창구를 열어두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을 치유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2세들을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등의 아웃리치 사역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어린양개혁교회는 교회를 이전한 이후에도 이 같은 아웃리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승례 목사는 지금도 24시간 상담창구를 열어두고 상담이 필요한 이들의 고민들을 항상 들어주고 있다. 비록 어린양개혁교회에 소속된 이들이 아닐지라도 상담을 요청해 오는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밤낮 구분없이 시간을 들여 노력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영혼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새벽 혹은 밤늦은 전화에 비록 많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이러한 상담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전히 마음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제 목회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류 목사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현재도 남모를 고민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의 사모들이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다.

또 이 교회는 TLC센터(Tender Loving Center)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격 및 환경의 문제로 교육과정이 원할하지 못했던 2세들을 맡아 기본 소양 교육부터 교과 과정까지 가르친다. 이 프로그램은 상처입은 2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귀한 접촉점이 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온 많은 2세들이 어린양개혁교회 아웃리치 사역의 성과들이다.

어린양개혁교회가 최근 2세 담당 목사인 임그레이스 목사를 주축으로 시작한 'Cooking with Grace' 사역도 관심을 모은다. 전도의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목도리를 손수 만들어 전해주는 목도리 사역에서부터 발전한 이 사역은 섬김이 필요한 1세들의 사역지나 관심이 필요한 2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특수사역으로 음식을 통한 섬김 사역은 1세들의 2세들을 향한 마음을 녹이고, 2세들에게는 따뜻한 한국의 정을 전해주는 사역으로 쓰임받고 있다.

美 복음주의 지도자 500여 명 트럼프 난민 정책 우려

미국 복음주의 교계 지도자 500여 명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정책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신을 워싱턴포스트(WP)를 통해 공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9개 난민정착 기관 중 하나인 월드릴리프(World Relief)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향해 작성한 이 서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난민 승인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정부의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 동안 그러했듯이 긍휼함과 보안의 문제가 공존할 수 있다. 우리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동시에 취약 계층의 무슬림들을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 무종교인들도 환영한다. 이 행정명령은 올해 입국이 허락된 난민들의 수를 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들의 미래와 희망을 빼앗았다."

서신은 또 "수 천명의 현지 교인들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입국한 모든 난민들을 환영해 왔으며, 이러한 교회들을 비롯한 여러 사역단체들은 더 많은 난민들을 받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라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으며, 이는 2,000년이 넘도록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명에 동참한 이들 가운데 팀 켈러 목사, 빌 하이벨스 목사, 노스랜드교회 조엘 헌터 목사, 미국복음주의협회 리이스 앤더슨 회장, 베스트셀러 작가 앤 보스캠프, 동남부침례회 신학대학교 다니엘 아킨 총장, 미국 오픈도어즈 데이빗 커리 회장 등도 포함됐다.

휘튼대학교 에드 스테처 박사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약자들을 대변해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하면서도 긍휼이 담긴 난민 정책을 갖춰야 한다는 우려와 이같은 정책을 펼 수 있다는 확신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혜진 기자



페리 노블 목사 ⓒ페리 노블 페이스북

'알콜 중독' 페리 노블 목사 다시 설교 강단에 서다

페리 노블(Perry Noble) 목사가 다시 설교를 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작년 알콜 중독과 잘못된 결정들로 뉴스프링교회 담임목사직을 박탈당했던 페리 노블 목사는 최근 그의 친구인 스티븐 퍼틱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엘리베이션교회 창립 11주년 기념식에서 설교했다.

노블 목사는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그는 "오늘 엘리베이션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퍼틱 목사에게 감사한다. 내일도 다시 설교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다려진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교회 강단에 설 수 있게 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른다"면서 힘든 시간에 자신의 곁을 지켜준 퍼틱 목사에게 큰 고마움을 전했다.

노블 목사는 "지난 2016년 7월 당시엔 내가 다시 설교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난 스스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예수님보다 알콜에 더욱 의존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스티븐 퍼틱 목사는 나를 지지해 주었을 뿐 아니라, 내 편에 서서 용기와 우정을 나누어 주었다. 또 내게 정말 필요했던 말들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밤에는 엘리베이션교회 강단에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삶에서 여러분의 곁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또 강단에 서길 희망하고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생명으로 바꾸신다. 여러분이 불신과 의심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러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덧붙였다.

노블 목사는 다음날 주일에도 엘리베이션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전했으며, 그가 설교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많은 교인들이 노블 목사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노블 목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뉴스프링교회를 설립하고 예배 인원 3만여 명의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강연과 저술 활동 등 활발한 사역을 펼치던 그는 작년 7월 알콜 중독을 이유로 목사직에서 해임돼 교계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노블 목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고 알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아왔다.

강혜진 기자

가가의 신앙적 발언… 영적 성장?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신다"

그 동안 파격적 공연과 언행으로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던 미국의 유명 가수 레이디 가가(Lady Gaga)가 지난 5일 열린 슈퍼볼 경기 하프타임 공연에 출연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가가는 가톨릭 교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 땅은 당신의 땅입니다"(This Land Your Land)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른 후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가진, 나뉠 수 없는, 하나님 아래 한 국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복음주의연합교회(United Evangelical Church) 사역자이자 가가의 학창시절 수학 선생님이었던 크리스 화이트 목사는 "가가가 팬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선포해 너무 기뻤다. 이는 가가의 영적 성장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화이트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레이디 가가도 많은 유명인들처럼 상처를 입고 있다. 명성과 성공은 절대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를 위해 수 년 동안 기도해 왔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가가는 불행하게도 다양한 외설적인 일들을 했다. 그래서 그녀의 신앙이 의심스럽다"면서 가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혜진 기자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김철민 장로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김일영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T한국학교 토 9:30AM~1:00PM
대학청년부/E-college 주일 2:00PM NEXT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제자훈련/사역훈련 화~목 7:30PM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새벽 오전 6:00 본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본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웍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CA 90650
T.(562)802-4959 C.(714)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11:30 EM주일 오전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예배 오후8시 교육부 오전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종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 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김한요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학교 11:00 AM 이원준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11:00 AM 새벽예배 화~금요일 5:3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토요일 6:30 AM
금요찬양예배 7:30 PM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당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청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10:3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6(Worship Center)
T. (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초등부예배 오전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어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주일 오전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9: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최 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영성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임경남 담임목사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cst# 212654040
PRT Tour & Consultin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엔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기독일보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생생한 종교개혁의 현장을 체험하세요~
실제 모형을 그대로재현해 놓은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5일 $999 ▶4/17 (항공포함)
▶시카고-인디애나 폴리스-신시내티-인디애나폴리스-신시내티
① 시카고 시티 투어 - 밀레니엄 공원 / 시청
②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③ 창조박물관 - 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 기록물을 보관
④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ARK투어 - 실물크기의 노아방주 모형
⑤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 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덤 센터
⑥ 링컨생가 및 뮤지엄 - 남북전쟁에서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의 생가, 뮤지엄
⑦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 (세계최장 동굴) - 켄터키 주에 있는 메머드 동굴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유럽 4개국 성지순례와 문화탐방
8일 $2,600 ▶4/24 (항공포함)
▶프랑크푸르트-하이델베르그-프라이부르그-루짜른-취리하-로텐부르크 프라하-드레스덴-비텐베르크-라이프치히-아이제나흐-프랑크푸르트
① 황태자의 첫사랑 하이델베르그 & 칼뱅 종교개혁지 순례
② 유네스코 문화유산 쁘띠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③ 호반의 도시 스위스 루체른 & 츠빙글리 취리히
④ 보헤미안 천년성 체코 프라하와 얀후스 개혁지
⑤ 종교개혁 메카 루터 비텐베르크 & 라이프치히



새로운 여행 문화를 창조하는 푸른여행~ 푸른감동~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강촌 같은 간이 마을 기차 나들이
특선 1 기차요금 포함/중식 포함 가이드 팁 포함
$99 오션사이드 당일 기차
▶ 출발 : 매주 토요일

100명 선착순 모집~ 서두르세요~
특선 2 샌하신토 케이블 카 아울렛 / 온천
$129 4차 / 조슈아 트리 온천 1박2일 ▶ 출발 : 3월 9일

이민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떠나는 여행
특선 3 캘리포니아의 만발한 아몬드 꽃, 자두 꽃 감상
$179 캘리포니아 과수원 꽃 1박2일 ▶ 출발 : 2월 27일

유일한 한국 안보 관광 투어입니다
특선 4 포항-울산-경주-평창 고성-서울-평택-철원등
$1,750 (항공포함) 2017 재향군인가족 5박6일 안보산업시찰단 (한국) ▶ 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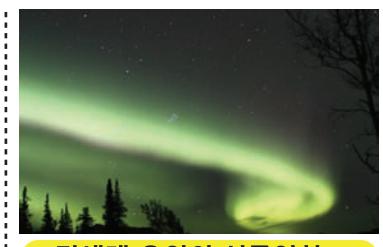


기존 세도나와 완전 차별화된 코스
미티어 크레이터 / 세도나 기차 / 생태 크루즈 4일 $399 ▶2/20
▶ '세도나 기차' ($100상당 옵션 포함)


최고의 자연석조 다리를 만나보세요
레인보우 브릿지 /모뉴멘트 벨리 4일 $399 ▶2/27
▶ 레인보우 브릿지로의 가벼운 산책 후 만나는 300피트 자연 석조 다리


성경속 산책~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테마파크 (항공포함) 5일 $999 ▶4/17
▶ 인디애나 폴리스 주 의사당 외부관람
▶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 시청 투어


최고급 사토 프롱트낙 호텔
캐나다 동부 (항공포함) 5일 $1,299 ▶매주 금
▶ 토론토 시내관광 - 세인트 로렌스 마켓
▶ 오타와 의회 연방의사당 리도홀


전세계 유일의 설국열차
알래스카 오로라 (+항공) 5일 $1,300 ▶매주 목
▶ 호텔에서 편안하게 오로라 관찰
▶ 페어뱅스 역사 박물관, 산타마을 등

미 서부, 동부, 캐나다, 한국 모든 여행을 푸른투어 5개 지사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자연과의 만남 미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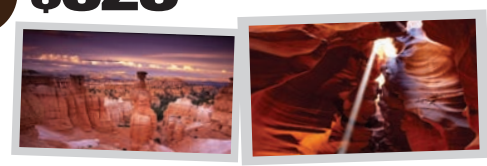
다른회사와 차별화된 미서부 관광
1 라스베가스 특급호텔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2 다럭스 리무진 라스베가스 야경 투어

▶매주 월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3대 캐년 4일 $389
3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4일 매주 화 - 7일 매주 화/토
4대 캐년 4일 $389
4대 캐년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7일 $689
▶매주 화/토
그랜드 캐년 / 라스베가스 3일 $299
▶매주 월/목/금/토
요세미티 / 샌프란시스코 4일 $389
▶매주 화/토
미서부 실속 여행 6일 $599



푸른LA 일일투어
▶매일 출발 (4인이상, 한인가이드) $99
올베라거리/다운타운/다저스스타디움/그리피스천문대/헐리웃거리/로데오거리(차창관광)/산타모니카해변/파머스 마켓/그로브 몰 등

"9대 캐년 완전정복" 그랜드 써클
6박7일 $829 ▶3/24, 4/8, 4/28


그랜드 캐년 / 브라이스 캐년 / 자이언 캐년 / 아치스 캐년 / 앤텔로프 캐년 / 모뉴먼트 밸리 / 캐피틀 리프 / 캐년 랜즈 / 글렌 캐년

"특급 몬테카를로" 미서부 4대 캐년
3박4일 $389 ▶매주 화 출발
자이언 / 브라이스 / 앤텔로프 / 그랜드 캐년



라스베가스 특급 몬테카를로 호텔 숙박
최고급! 디럭스 리무진 야경투어~

한국
벚꽃맞이 한국일주 8일 $2,099
천년의 제국 아고구려 공연/칠십리 유람선 [대한항공] ▶3월 30일
- 부여 / 담양 / 화개장터 관광 / 통영항과 한산대첩지 / 진해 벚꽃

"아름다운 우리강산을 동서남북 누비다"
新 한국기행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상품구매 가능!!
160,000마일리지 전국일주 7일 ▶토 $1,140 +항공
85,000마일리지 서남부 4일 ▶토 $610 +항공
85,000마일리지 남동부 4일 ▶화 $610 +항공
60,000마일리지 한려수도 3일 ▶월/금 $430 +항공

정통 미국을 즐기려면 미동부

1 푸른 유일 $100상당의 3대 옵션 포함 - 타사 비교 요망
1) 자유의 여신상 2)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입장료 3) 시닉터널
2 서부 여행사 유일하게 타사위탁이 아닌 푸른이 직접 행사

실속 미동부 5일 (뉴욕/워싱턴 DC/나이아가라) ▶매주 수/토 $799 (항공포함)
미동부 6일 (미동부 5일+천섬) ▶매주 수/토 $8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7일 (미동부 5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049 (항공포함)
미동부/캐나다 8일 (미동부 6일+몬트리올, 레이크조지, 퀘벡) ▶매주 수/토 $1,099 (항공포함)
미동부/보스턴 캐나다 10일 (미동부/캐나다 8일+보스턴/뉴포트) ▶매주 수/토 $1,299 (항공포함)

1등 아메리카 대륙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남아있는 고대 회당의 흔적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2)

훈련과 파송의 장소 가버나움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

갈릴리 바다 서안 중심 도시 티베리아스에서 90번 도로를 타고 갈릴리 북서 해안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기노사로를 지나 갈릴리 바다를 둘러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87번 도로를 만난다. 이 도로를 타고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와 베드로 수위권 교회가 있는 타브하를 지나면 요단강 상류가 갈릴리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이르기 전에 카파르나움(Capernaum), 우리에겐 가버나움으로 잘 알려진 고대 유적지를 만난다. 이곳에서 베드로의 고향 벳세다와 고라신은 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으며 반경 2마일 안에 있다.

예수님 당시의 가버나움

헤롯 대왕의 두 아들이 북부 갈릴리를 나누어 통치하던 시절 가버나움에서 동쪽으로 2.5마일쯤 떨어진 곳에 상류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을 경계로 헤롯 안티파스(서쪽)와 헤롯 빌립(동쪽)의 영지가 나누어졌다. 그래서 가버나움은 국경지대의 주요 대로에 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으며 로마의 세관(막2:14)이 있어서 국경을 지나는 물품이나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해변 길을 통하여 갈릴리 바다를 끼고 골란 고원 쪽으로 올라가는 중요한 대상로와 군대 이동로였다고 보여진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10곳의 포구가 있었는데 그중 가버나움이 가장 번성한 포구였다고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가장 큰 유대교 회당(눅7:5)이 있었다.

갈릴리 바다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곳 "나훔의 아들 The son of Naum"이라는 지명(위로의 마을이라는 뜻도 있다)을 가진 가버나움에서 사셨다.(마4:13) 당시 이 지역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이방인들과 유대 두 지파가 섞여서 살았던 곳이며 이방 문화와 이방 세력이 더 강하였던 지역이었다.

훈련과 파송의 장소

주님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다.(마4:15, 사9:12) 제자들은 이곳에서 부름을 받았고(마4:18-22, 9:9)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마8:5-13)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나았고(마8:14)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갔다.(마9:1-9, 요6:55-59) 세관원이었던 마태도 이 곳에서 부름을 받았다.(마9:9)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음을 입기도 하였다.(마9:18-25)



베드로 교회의 모습

예수님의 제2의 고향(마4:13)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이곳에서 열두 제자를 훈련하시고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며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기도 하셨다. 아마 공생애 3년의 대부분을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활동하셨으리라 본다. 반 세겔의 교훈(마17:24), 연자 맷돌의 교훈(마18:6)도 생각나게 한다.

가버나움의 교만

가버나움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이다. 게네사렛 평야의 북동쪽 모퉁이에 있는 칸미니에(호르바트민님)는 유적의 모습이 아랍 사람들과 관련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버나움이 아니라 본다. 남은 하나는 텔 카파르나움이다. 이 유적은 앞선 칸미니에에서 북동쪽 연안을 따라 2.5마일쯤 떨어져 있고, 상류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남서쪽으로 비슷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

이곳의 해안 평야는 무척 좁지만 고대에는 요단강으로부터 아래로 가버나움을 지나 게네사렛 평야를 가로지르는 길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나 이집트까지 뻗어있는 큰 무역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도시가 크게 형성되었으리라 본다. 게네사렛 평야 전역의 많은 샘들과 요단강의 물은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면서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서 어부들이 고기잡이하기에도 좋은 곳이다.

예수님의 행적도 이곳 유적물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많이 사랑했던 도시였지만 교만으로 치닫던 가버나움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함께 책망을 받고(마11:21-24) 결국은 AD 746년에 지진으로 파괴되고 만다. 18세기까지 버려진 마을로 있던 가버나움이 다시 빛을 본 것은 1865년 윌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회당 발굴이 시작되면서이다. 이곳에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적힌 비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오늘날의 가버나움

주차장에서 가버나움 입구까지 가려면 500m-600m쯤 길을 가야 한다. 우기에는 야생겨자가 우측으로 노랗게 피어있다. 좌측으로는 야자수가 길게 그늘을 늘어뜨리고 있다. 입구에는 〈나훔의 마을,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간판이 보인다. 우측 한편으로는 지진 때 파괴된 회당의 기둥과 머릿돌들을 볼 수 있다. 전면을 바라보면 베드로 교회가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 있다. 마치 배의 구조와 비슷하게 교회를 지어놓았다. 베드로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잠시 묵상 기도 후 가버나움에 관련된 성경구절을 읽은 다음 유리창 밑으로 보이는 베드로 집터 위에 세워진 초기 교회의 모습을 본다. 교회에서 내려와 교회 밑에 가서 베드로 집터를 보고 베드로의 집과 회당 사이에 있었던 집들을 바라본다.

아련히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 지붕에서 달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인다.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달려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의 헌신과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집 구조에 기인하기도 한다. 당시 집은 지붕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집은 돌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야자나무 가지를 엮어 물과 흙을 개어 만들었다 한다. 만든 후 얼마가 지나면 지붕은 단단해지는데 구멍을 뚫기는 쉬웠다고 한다.

앞으로 나아가 보자. 백색 대리석 회당이 보이는데 계단 입구에 서서 좌측 밑을 보면 현무암으로 된 기초석이 보인다. 이 기초는 바로 예수님 당시 회당의 기초이다. 지금 보이는 현 회당은 비잔틴 시대인 4세기에 지어진 것이다.

가버나움의 교훈

3년 간 제자 교육과 파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주님의 사역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곳이다. 주님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등 세 도시를 삼각형으로 연결한 반경 10리 안에서 생명을 심으셨고, 주님은 생명이기에 작은 곳에서 시작하셨지만 복음은 흐르고 흘러 전 세계에 전파된 것이다. 교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 직분도 높고 낮음이 없다. 가정도 부하고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이 생명이 있다면 천하를 움직이는 힘을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서병길 교수
이스라엘선교회
캘리포니아신학교

〈계속〉

필자와 함께 가는 영성순례
이스라엘-요르단
2017년 3월 15일~24일
***문의: 213-505-1583**
***이메일: iskms@hanmail.net**

2017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온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총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지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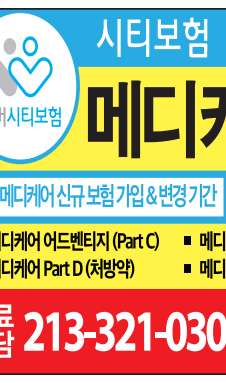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의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Lake St.) (월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패키지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160 (디자인 포함)
A형 스탠드배너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메디케어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보험가입&변경기간 10월15일~12월7일
■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커넥트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213-321-0302 Connie Kim(김 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팥찐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지독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혹,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3달분 $60
배 빼는 숙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한국의 맛
우리반찬
KOREAN FOOD
THE BEAUTY OF KOREAN FOOD
최고의 기회 NO MSG
웰빙푸드 전문점
선별된 좋은재료, 최고요리 전문가의 정성어린 손길로 모십니다.
품격있는 캐더링
웨딩 캐더링
교회 행사 캐더링
돌잔치 캐더링
회갑잔치 캐더링
생일상 캐더링
■ 스페셜 다이어트 푸드
■ 자연의 맛 그대로 조리된 각종 반찬
■ 전통 찜요리 (궁중찜, 갈비찜, 코다리찜, 조기찜, 묵은지 등갈비찜)
■ 웰빙 김밥
■ 김치류
연말 연시 캐더링 주문 환영
Tel(213)388-0022
356 S. Western Ave. #106, Los Angeles, CA 90020
찾아오시는 길
Western Ave
4TH

● 이동주 칼럼

한국 여성과 무슬림 남성의 결혼, 무엇이 문제인가?



이 동 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지난해 4월 필자는 '파키스탄 한국 성노예'라는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 기사 서두는 이렇다. "왜 한국은 한국 내에 불법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을 인권보호라는 차원에서 옹호하고, 그들에게 속아넘어가 파키스탄에서 노예생활하는 한국인들의 인권에는 관심이 없는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기자 자신의 체험을 기록해 나갔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내가 남자들에게 주눅이 든 데는 이유가 있었다. 파키스탄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나는 성희롱을 당했다. … 난민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난민들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심지어는 똥침을 놓기까지 했다. '프로 탈레반'들이 거주하는 국경 인근 주민들이 던진 돌에 한번 맞은 후로는 오히려 마음이 담담해졌다. 수도 이슬라마바드 근처의 난민촌도 마찬가지였다. 열댓 명쯤 되는 아이들이 내 주위로만 몰려들어 엉덩이를 만지고, 옷을 잡아당겼으며, 나뭇가지 등으로 찔러댔다. 그 모습을 본 남자 어른들은 내가 안 되었던지 나뭇가지를 꺾어 아이들을 쫓아주었다. 처음 내 뒤를 따르는 아이들의 무리는 말 그대로 '공포'였다. 순박한 눈빛으로 내게 접근한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었다. … 어느 날 밤, 남자들만 북적댄다는 야시장 쪽으로 취재를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내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극구 이를 말리는 것이었다. 여성은 절대 밤길을 다녀서는 안 된다며 그는 '함께 길을 가는 남자조차도 위험해진다'며 만류했다. 〈중략〉 이곳 국제공항에서의 일이다. 어느 동양인 아주머니가 한국말로 '미친년, 미친년' 하며 울고 있었다.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내가 한국 사람인데, 대체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아주머니의 말이, 자신의 딸이 파키스탄 남자와 살고 있어 잠시 다니러 와서 보니, 사는 꼴이 말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보통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파키스탄은 아주 깡촌이다. 그런데 그곳은 진흙 바닥에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놓은, 금방 무너질 듯한 통나무 침대가 가구의 전부다. … 한국 여자들은 집 근처 30미터를 채 벗어나지 못한다. … 한국 여자들의 여권을 남자들이 붙들고 있어 여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 결국 어떤 한국인 사장의 집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딸의 남편이 사설 경찰을 불러 집을 포위하고 그 사장을 협박하는 통에 딸은 남편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위 기사는 우리가 이슬람의 여성관을 알고 있어야 하는 긴박감을 준다. 무슬림 여성이 베일을 쓰는 이유에 관해 꾸란이 서술하고 있다. "예언자여, 그대의 아내들과 딸들과 믿는 여성들에게 베일을 쓰라고 이르라 그때는 외출할 때라 그렇게 함이 가장 편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간음되지 않도록 함이다(Sura 33:59)."

필자가 UAE를 방문했을 때 들었던 이야기는, 중동 남성들이 아내를 집안에 감금한다는 것이다. 중동 아내들은 집이나 자동차와 같이 남편의 소유물이고,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거나 가구처럼 바꿀 수도 있다. 중동 여성들에게는 활동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며, 남편이 외출할 때 대문을 잠가 아내들을 집안에 감금하기도 한다. 여자들이 외출해야 할 때는 아바야(베일)로 온 몸을 뒤덮고, 남편이나 오빠나 남동생이 보호자로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 아랍 여인들은 가정에 손님이 오면 얼굴을 가리고 문을 열어주고는 안방으로 사라진다. 아랍 여성들은 절대로 식구 외의 남자들과 이야기하지 않으며, 남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는 여성을 부도덕하게 생각하고, 다른 동·서양 사람들을 정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여성을 감금하는 이유와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매우 독특한 여성관 때문이다. 그들에게 여성의 육체는 수치스러운 것이다. 여성의 육체에 대한 이슬람 하디스들의 관점은 여성이 아우라(awrah, 외음부) 자체이며, 여성 전체를 "외부에 노출된 성기"로 보는 것이다. 중동의 여성들은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자기 육체를 "감추어야 할 더러운 것"이라고 느낀다.

아부 하미드 알 가잘리(Abu Hamid al Ghzali, 1058-1111)는 '여성의 역할'에 관해 "이웃과 교류하지 말 것, 이웃을 방문하지 말 것, 남편의 허락 없이 집을 떠나서는 안 되고 허락을 받았다면 남들이 보지 않게 나가야 할 것.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과 오솔길을 택하며, 낯선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듣거나 알아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남편의 친구에게 말을 걸지 말아야 하며,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의 친구가 부른다면 자신과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문을 열지도 대답하지도 말아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 남편의 성관계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아내는 언제든 남편의 성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준비돼 있어야 한다. 여성은 성기다. 그녀가 (집) 외부로 나갈 때 마귀가 그녀를 환영한다. 여성이 집에서 외출하는 것은 성기를 노출하는 것이 된다. 여성이 기도하러 모스크에 가는 것도 포함된다.

가잘리는 "여성이 집안에 있을 때 알라의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다. 그리고 집안에서 여성의 기도는 모스크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낫다"고 가르쳤다. 가잘리는 "남편의 몸이 피고름으로 덮여 있고 아내가 그것을 핥고 마신다 해도,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기에 아직도 한참 부족하다"며, 이는 알라의 사도가 말한 것이라고 토를 달았다.

무슬림 여성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장 큰 부담, 최우선적인 책임은 그녀의 수치인 "자기 몸을 덮어 가리는 일"이다. 몸을 은폐하고 숨겨서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신체 형벌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남성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는 일이다. 남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알라의 명령들 중 하나이다. 여성 육체의 모든 부분은 무슬림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한다. 무슬림 남성들은 여성 전체를 볼 때, 그녀의 은밀한 부분과 같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서 저지른 범죄행위는 여성들의 책임이지 남성의 책임이 아니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성들은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성은 처녀성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한다.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종종 괴롭힘과 조롱을 당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도 대학교 캠퍼스의 무슬림학생연합이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지 않는 여학생에게 수치를 준다. 사춘기 남자 아이들은 가리지 않은 머리와 팔과 다리에 적대감을 가지고 경멸감을 가지며, 혐오하고 증오하고 공격한다. 몸을 가리지 않은 여자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아도 마땅하다고 배운다.

또 낯선 여자 아이들을 골탕 먹이고자 한다. 터키 소년들이 치맛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내려왔지만 발밑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여학생의 다리에 염산을 뿌린 일이 있다. 이집트 기독교 여성들은 그러한 예상치 못한 공격이 두려워 이슬람식으로 몸을 가리고 다니려는 경향이 있다. 시나이반도 해변가에서 한 이집트 병사에 의한 일곱 소녀들 총기 살해사건에 대해, 살해자는 짧은 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소녀들을 음탕하게 바라보면 라마단 기간 동안 남자의 금식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샤리아 규정에 의한 처벌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붙잡히거나, 친척 아닌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된 모든 여성들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7명의 남성들에게 집단 강간당한 한 여성에게 채찍형을 가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친척이 아닌 남성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파키스탄 방문 경험에 의하면, 자동차들이 달리는 횡단보도가 따로 없는 찻길을 남자들은 뛰어 건너갔다. 그러나 여자들은 발에 끌리는 베일을 입고 다리가 나오지 않도록 천천히 아슬아슬하게 찻길을 건너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다 그 긴 베일 자락이 달리는 차에 걸려 치어 죽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급속하게 입국하는 이때, 무슬림 인구도 팽창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는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집계로 2015년 현재 14만 5,000명에 이른다. 이에 비례해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결혼과 그 문제점들도 무수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강간(유사강간 포함) 범죄율은 파키스탄이 내국인 대비 5.85배 높고, 방글라데시가 3.2배, 키르기스스탄이 2.83배로 이슬람권 외국인들이 강간죄를 많이 짓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런 글도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무슬림 남성들은 … 먼저 한국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는다. 그리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자고 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방글라데시 남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그는 무슬림 남성들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첫째는 안정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 되지 않아도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는 밥 해주고 집안 일을 해주고 마음대로 부부관계를 할 수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좋다. 셋째는 한국 여성들은 너무 쉬웠다고 했다. 문제는 이들이 본국에 대부분 또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국가이므로, 결혼하려면 독신증명서를 제출해야 혼인신고가 된다. 그런데 그들은 독신증명서를 가짜로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다. 일부다처제 국가이므로 첫 번째 부인의 허락만 있으면 4명까지 부인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독신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깊은 관계까지 교제한 한국 여성들은 이를 알고도 결혼한다. 그가 '쉽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여성들은 사랑한다고만 하면 모두 통과라는 것이다. …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그들 앞에서, 한국 여성들은 착각한다.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말이다."

'연합뉴스'는 '본국에 처자식 두고 한국서 결혼한 외국인 체류 불허', '한국여성과 혼인 중에도 본국서 아들 둘 더 낳아'라는 머리말로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가 파키스탄 국적의 A(41)씨가 서울남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2년 7월 산업연수생(D-#)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와 머물다, 2005년 말 한국 여성 B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F-2)로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A씨는 결혼 8년 만에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듬해 법원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등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했다. "법원은 A씨가 한국 여성 B씨를 속여 결혼했다고 봤다." 김 판사는 "원고가 본국에 처와 아들 23명이 있음에도 B씨와 혼인신고 당시 미혼이라는 허위 공증서류를 제출해 혼인신고를 했으며, B씨와 혼인 중에도 파키스탄의 부인 사이에 아들 2명이 새로 태어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B씨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던 데에는 원고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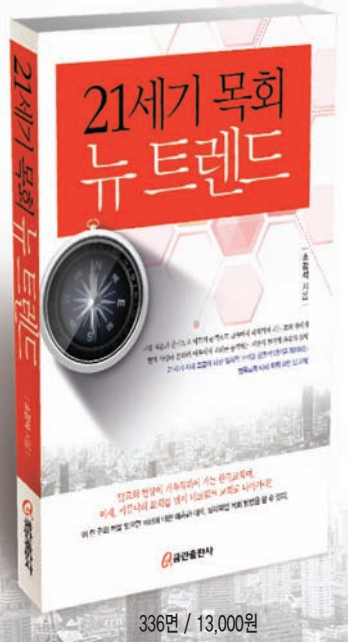
장기체류를 위해 한국 여자와 위장결혼을 하거나 교회로 출석하여 거짓 신자로 장기체류 연장을 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1주일에 44시간을 일하면 한 달 85만 원의 임금이 보장된다. 평균 임금은 120-130만원 정도. 파키스탄은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남성 대졸자가 취업하더라도 월급이 많아야 1만 5,000루피(23만 원) 정도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은 중국의 9배, 네팔의 25배, 몽골의 23배에 달한다.

〈계속〉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



336면 / 13,000원

소 강 석 지음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여,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법을 알 수 있다.
다가오는 2017년을 '21세기 목회 뉴 트렌드'와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사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훈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생명언어
317면 / 13,000원



안나가? 가나안!
240면 / 11,000원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라
256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qumran.co.kr
• 서울 종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대)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북새통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고난을 이기는 산 소망
박정근 | 디모데 | 222쪽



부산 영안침례교회를 담임하는 저자의 베드로전후서 강해집이다. 18차례의 설교에서 고난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비결을 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전후서를 통해, 우리는 먼저 '나그네'라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그것이 가져다 줄 '산 소망'을 발견한다.

연봉을 추월한 십일조
고수경 | 베다니 | 244쪽



2001년부터 '성경적 재정'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해 2004년부터 관련 강의를 시작한 저자가 15년의 준비를 끝내고 출간한 책이라고 한다. 저자는 성경이 인간의 생활 전반 문제들의 해답을 제시하며, 재정도 그 예외가 아님을 강조한다. 8단계로 소개하는 '성경적 재정'의 마지막은 '좁은 문'이다. 무조건 '돈 잘 버는 비결'이 아닌, 재정이 부요해지는 안목과 지혜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

아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에번 플레스버그 | 장보철 역 | CLC | 256쪽



미국에서는 현재 약 2천만 명의 아이들이 이혼한 부모 사이를 왔다갔다 한다고 한다. 머무는 곳을 매번 바꿀 때마다 아이들은 남들이 알 수 없는 무거운 짐과 두려움에 직면한다. 이혼 부모를 둔 자녀들이 환경 변화에 따라 경험하는 심리적·물리적 불안과 아픔을 그들의 편지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부모로 인한 가정의 혼란 속에서 작게 흐느끼는 어린 영혼의 절규.

마태복음 영어로 통째 외우기
김다윗 | 살림 | 332쪽



마가복음, 로마서, 시편, 모세오경에 이어 '성경과 영어를 동시에' 시리즈 다섯 번째로, 저자가 쓴 '영어로 통째 외우기' 시리즈 완결편이다. 자녀들을 모두 홈스쿨링으로 양육하면서 성경 암송으로 고급 영어까지 지도한 경험과 이를 토대로 영어 캠프를 진행하며 영어 말문을 트이게 했던 노하우까지 담아냈다. 산상수훈과 주기도문 등 익숙한 말씀들을 영어로 외우게 한다.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LA : 기독교서적센타 T. (800)669-0451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REVIEW

"아픔과 실의, 고난 거치며 젊은이의 신앙 인격 영글어"

"하나님께서는 좋은 본이 없을 뿐 아니라, 나쁜 영향에 에워싸여 살 수밖에 없는 암울한 시대에도 악에 물들지 않은 청결한 주의 청년들을 일으키십니다. 짙은 어두움을 밝히는 새벽빛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성령론을 연구하며 성경으로부터 어긋나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날카롭게 비판해 온 학자가,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저자는 3년 전 청년집회 설교를 토대로 한 이 책에,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꾹꾹 눌러 담았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라는 전도서 12장 말씀에서 따온 제목 〈별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에서부터, '반짝 반짝 빛나는' 청년들이 그 젊음을 올바르게 발산하길 바라는 저자의 애정이 느껴진다. 저자는 요즘 말로 '꼰대'처럼 다가가지 않고, 젊은이들이 뿜어내는 현실 인식과 토로에 공감하면서 성경 말씀이 전하는 바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제목이 들어간 전도서 말씀 강해에서 저자는 말씀대로 "젊음을 마음껏 즐기라"고 권유한다. 따라 나오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젊음의 즐거움을 앗아가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종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 전도자는 이처럼 쾌락주의를 거부할 뿐 아니라,



별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박영돈 | 복있는사람 | 152쪽

또 다른 극단인 금욕주의도 배격하고 있다.

'헛되고 헛된 인생, 예수 믿으면 공허함이 없어지는가?' 하는 물음에도 의외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인생의 무상함을 더 절감하게 된다"는 것.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공허함'을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되고, 이것 자체가 '은혜'라고 말한다.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며 좇아갔다가도 금방 싫증이 나고, 하나님에 대해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되기 때문이다.

부끄러운 기성세대들을 거울 삼아, 투철한 개혁의 정신과 의지로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달라는 부탁도 잊지 않는다. 따를 스승이,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너무 한탄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개혁의 의지와 열정이 내면에서 개혁과 부흥을 위한 에너지로 승화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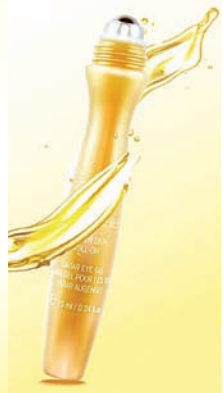
저자는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기성세대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인격과 영성과 실력을 함양하기 위해 젊어서 힘써야 한다"며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처럼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시리고 아플 때가 많겠지만, 이런 아픔과 실의와 고난의 질곡을 거쳐 가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은 알차게 영글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책에서는 '어느 젊은이(부자 청년)의 슬픔(마19:16-26)', '우리의 얼굴을 찾을 때(고후3:18-4:6)',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는 삶(요7:37-39)' 등의 설교를 전하고 있다. 각 장 마지막에는 '토론을 위한 질문'을 실었다. **이대웅 기자**

에뜨레벨
être belle
Made In Germany
| 피부 회복력 강화 시스템 |
24캐럿 골드와 꿀의 환상 조합!
피부 세포 재생 솔루션
G/O/L/D/E/N/S/K/I/N
클렌징부터 마무리 크림까지 느낄 수 있는 24캐럿 골드 트리트먼트
1) 눈가 쿨링 효과와 풍부한 영양공급으로 뛰어난 퍼밍 효과로 건강한 눈매로!
2) 자외선이 강한 오전에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탄력을 향상!
3) 밤 사이 충분한 피부 휴식과 영양을 채워주어 피부 컨디션을 회복!


■ 골든 스킨 케어 세트
Golden Skin Care Set
골든 스킨 아이 젤 15ml
골든 스킨 데이 크림 50ml
골든 스킨 나이트 크림 50ml
3종 세트 $256+tax
나이트 크림 50ml
데이 크림 50ml
아이 젤 15ml
Biocüra
바이오큐어는 독일최대규모 코스메틱 막심과 엠에스코의 라인업 확장으로 의료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 특허기술을 보유하여 의약품, 화장품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바이오큐어의 제조에 기술제휴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 놀라운 효과를 한알에 담다 |
■ 바이오큐어 트리트먼트 캡슐
TREATMENT CAPSULE
한알의 파워! 블랙캡슐
독일 제약회사의 기술력 바이오큐어
TREATMENT CAPSULE 50ml
$49+tax


미백효과
탄력개선
주름개선
항산화
안티에이징
혈색개선
| 금빛으로 빛나는 골드 캡슐 |
■ 바이오큐어 콘센트레 퓨어세럼
CONCENTRATE PURE SERUM



■ 골든 스킨 아이 롤-온
Golden Skin Eye Roll-on
휴대가 간편한 젤 타입의 아이 롤-온
탄력
피부결
수분공급
눈가 생기
Golden Skin Eye Roll-on 10ml
$34+tax
■ 선 크림 + 애프터 선 로션
Sun Cream + After Sun Lotion
Sun Cream + After Sun Lotion 75ml+75ml
$44+tax

선크림과 애프터 선 로션 패지키 상품으로 선블럭을 차단해주며 햇빛으로 인해 자극 받은 피부 진정까지 한번에 가능한 제품.
구입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기독교 논하는 학자인가? 주님 따르는 제자인가?

[송광택 목사의 인문 고전 읽기 14]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의 저자 쇠얀 키에르케고어(Søren Kierkegaard)는 덴마크의 철학자다. 시인이고 신학자이기도 한 그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유일한' 세계적 철학자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그는 20세기 현대 사상과 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도 그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 독일에서는 키에르케고어에 대한 관심이 널리 퍼져, 제1차 세계대전 전에 그의 모든 작품이 번역됐다. 그러나 그의 업적이 광범위하게 알려진 것은 제1·2차 세계대전이 진행된 기간이었다.

키에르케고어는 만년에 '기독교 사상가'로서 당시의 덴마크 교회의 현실을 격렬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의 본질을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적 차이에 뒀다. 그에 따르면 신앙의 영역은 이성으로는 다다르지 못하는 '역설'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단독자'라는 개념과 '실존'이라는 존재 양식은 실존철학의 탄생을 가져오는 토대가 됐다.

이 책은 〈For Self-Examination/Judge for Yourself〉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키에르케고어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근거하여 '술 깨기'의 의미에 관해 천착한다. "자기지식 안에서 정신 차려 자기 자신이 되기(to come to oneself), 그리고 무한히 무조건적으로 사로잡혀(engage) 하나님 앞에서 무(nothing)로써 그분 앞에서 정신 차리기. 이를 술 깬다고 할 수 있다(30쪽)."

역자가 해제에서 밝히듯 "키에르케고어는 모범 답안을 제공하기 위해 글을 쓰지 않는다. 그는 끊임없이 독자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이끈다. 결론은 독자의 몫이다."

아마도 이 점이 독자의 독해를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 그럼에도 이 책이 그의 저서들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작품으로 언급된다는 사실로 인해, 독자는 용기를 낼 수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의 초기 시대에 아무리 많은 오류가 있었다 해도, 우리 시대와 비교할 때 그 시대가 기독교적이다. 그 시대는 기독교를 즉각적으로 행위로 옮겼고, 그 행위가 기독교의 단순성일 때 일반적으로 옳다."

기독교는 초기 300년 동안에는 나름대로 본질과 순수성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교리 이전에 순종이 있었고, 신앙고백에 앞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있었다(우리에게 교리와 신학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무관한 지점에 이르렀다. 기독교가 학문의 세계의 한 과목이 되고, 심지어 세상적 출세와 명망을 얻는 데 이용(?)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스스로 판단하라
쇠얀 키에르케고어 | 이창우 역
샘솟는기쁨 | 248쪽

"기독교는 각자 나름대로 학문의 분야가 된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생계 수단으로 삼고 그 주제의 교수가 된다. 그러면서 진정한 단순성, 진정으로 기독교적인 것에 대한 진실로 단순한 설명인 그 단순성을 행하는 것을 망각하거나 생략한다(51쪽)."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행하는 것이요, '죽음의 싸움같은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깊이의 수준과 엄중함이 사라진 것이다.

세월이 흘러 기독교는 '알맹이'를 잃고 화석화됐다. 본래 기독교는 진리의 증인에 의해 섬김을 받았다. 기독교는 순교자의 피로 증명되는 진리가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교리를 통해 이익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위해 희생하고 또 희생해야 했다(73쪽)."

이 진리의 증인들은 교리의 도움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교리를 위해 살았고 교리를 위해 죽었다. "그로 인해, 기독교는 능력이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 그런데 후대에 기독교를 후광삼아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의 고통을 자신의 유익으로 바꾸었다. 기가 막히게 성공했다. 몇 세기가 흘렀고, 온순하고 잘 속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채지 못했다(73쪽)."

키에르케고어에 따르면 기독교는 변화될 수 없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처럼 변화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인간적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궁지에 빠지듯이 그렇게 궁지에 빠질 수도 없다. (중략) 단 한 명의 사람도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기독교는 불변한 채 남는다. 기독교는 일점일획도 굴복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더라도 일점일획도 변화되지 않는다. 모든 개인에게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불쌍한 자들에게, 가장 버림받은 자들에게 기독교가 선포한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한 사람을 위해 사랑 안에 계신 하나님은, 말하자면 하늘과 땅에 시동을 거신다(108쪽)."

기독교가 '어떤 지적 교리'로 축소될 수 없음을 키에르케고어는 거듭 역설한다. 기독교는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 지점은 '정말 인류가 회피한 지점'이다. 그 지점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다. "중요한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이다. 이 지점을 강조한다면, 강조가 더욱 강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적어진다(165쪽)." 이 지점에서 어떤 양보나 타협이 이루어질 때, 기독교는 그 빛을 잃는 것이 아닐까.

키에르케고어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기독교를 논하는' 학자를 원치 않는다. "그 분은 오직 제자들만 원한다. 제자는 표준이다. 모범인 그리스도와 본받음은 소개되어야 한다(186쪽)."

역자가 해제에서도 언급했듯, 키에르케고어는 말씀을 분석하고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했다. 사실 "말씀을 적용시켜, 심지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현기증을 일으키는 무시무시한 행위(220쪽)"이다. 키에르케고어는 기독교 세계에서 이는 것과 행하는 것이 점점 더 이질적인 것이 돼 버린 현실을 고발했다. 많은 이들이 아는 것은 곧 행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책에는 매우 심오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철학이 있다. 또한 자성을 촉구하고 내적 겸손으로 초청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키에르케고어는 이 책에서 변증적 논리를 사용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 더 큰 방점을 찍고 있다. 무엇보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다. 기독교를 다른 무엇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가진 제자가 되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송광택 목사
한국교회독서문화연구회 대표

아우구스티누스를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헨리 채드윅 | 전경훈 역
뿌리와이파리 | 216쪽

서방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도 바울 이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사상은 좋은 면으로든, 나쁜 면으로든 중세 교회를 지배했다. 즉, 중세 스콜라 철학자들 및 중세 대학 창립자들의 신학과 철학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사상은 언제나 사랑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사상과 저서들을 다시 평가했다. 사랑이란 개인의 행복(지금 말하는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을 추구하는 것이면서도, 일정 부분 자신을 계속 부정해야 하며, 자신이 아닌 것이 되고자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역설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그의 자유의지론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신비와 이성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힘씀으로써 기독교 신학과 철학에 탄탄한 기초를 놓았다. 즉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 체험(은사)을 중시하면서 이성(지식)을 폄하하거나 혹은 반대 입장을 취하는 자들이 아직 한국교회 안에 잔존해 있다는 것은, 신학적 기반이 약하거나 폐쇄적이거나 배타적인 신앙의 성향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모습에 해당된다.

그는 단 5년을 제외하고는 전 생애를 로마제국 아래 북아프리카에서 보냈다. 인생 후반 34년 동안 그는 현재 알제리의 안나바, 당시 번화한 항구도시였던 히포의 주교로 살았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놓게 된다. 그의 생애와 사상은 서구 고대 말기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종합선물세트에 비유될 수 있다. 그는 그리스 사상과 라틴 사상가들을 두루 섭렵했고, 마니교를 비롯해 여러 종교를 경험한 인물이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을 때, 이 모든 사상과 경험들을 종합해 고대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세계의 중심 사상이었던 플라톤과 신플라톤 사상들을 계승·발전시켜, 세계를 일원론으로 설명하려 한 신플라톤주의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유일신 사상을 체계적으로 확립했다. 즉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 여러 교부들이 끊임없이 고민해 왔던 신학과 철학의 관계 정립이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러 일단락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본서는 고대 그리스도교에 대해 알고자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 이미 서구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책이다. 본서의 저자인 옥스퍼드대학 교수와 학장을 지낸 헨리 채드윅은 교회사 분야에서 전설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본서의 장점은 저자의 장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점이다. 복잡한 철학과 신학의 문제점들을 매우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정리해 줌으로써 비전공자들도 크게 어려움 없이 읽어갈 수 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신학과 사상 형성 과정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당시 아우구스티누스가 영향을 받았을 만한 주요 철학과 사상가들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놓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점은 아우구스티누스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핵심만을 요약·정리해 놓았다는 점이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알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으로 본서를 적극 추천한다. 강도헌 목사
프쉬케치유상담연구원 원장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드온동족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크오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뱅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무료전화 1-877-580-2424 산호세베이 (310)538-3333 LA OC (323) 582-2424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A newspaper of reconciliation led by the Holy Spirit

CHRISTIANITY DAILY

SUBSCRIPTIONS:
Don't miss out on the news!
To subscribe,
please e-mail us at
christianitydaily@gmail.com.

Tel. 213-739-0403 www.christianitydaily.com THURSDAY, February 16, 2017 Vol. 89

Dr. Faith Kim: Pioneer and Teacher Who Places Her Faith in the 'Can-Do' God

Professor of over 30 years shares the key to enduring the struggles of ministry and pioneering

BY RACHAEL LEE

Those who feel the burden of paving paths in places there were none will find a dear friend and teacher in Dr. Faith Kim, who has been a pioneer herself in many respects.

Known most for her seasoned teaching career of over 30 years at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now known as Gateway Seminary), Kim was one of few Korean women who pursued ministry and attended seminary in her day. She received her master's in Christian education at Moody Bible Institute in 1967, another master's in Christian ministry from Wheaton College in 1971, and her doctoral degree from Golden Gate in 1987.

But as fellow pioneers may relate, Kim's journey in ministry, and in being the first in many of her pursuits, consisted of many struggles. She experienced the pain of seeing division, betrayal, and split in the church. She faced discrimination, subtle and obvious, as a Korean and as a woman. She experienced the loss that resulted from a house fire, and saw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in an immigrant family.

Kim said it was her faith in God's power that has strengthened her to persevere through the trials.

"To God, a mountain is a speck of dust. For us, it's a mountain, but not to God," Kim said. "God's thoughts are not our thoughts. And because we have a can-do God,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To God, a mountain is a speck of dust. For us, it's a mountain, but not to God."

Her 'can-do' faith may have been among the factors that have driven, and continue to drive, her passion for education and building God's kingdom even until today. Kim and her husband are donors to several Christian institutions, including Wheaton College, Golden Gate, and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Though she retired from her teaching position at Golden Gate in 2012, she currently teaches classes at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Kim's focus on education has been on ministering across cultural lines, as she taught leadership formation of multicultural ministry at Golden Gate, and two of the centers that resulted from the Kims' donations focused on global missions: the David and Faith Kim School of Global Missions at Golden Gate, and the David and Faith Kim Global Vision Center at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Kim has emphasized to her students that all people – across gender, age, and ethnic lines – share at least one thing in common: they are God's children. In order to embrace people of all backgrounds, one must break down the 'fantasy box,' as she calls it.

"It's the notion that if you are not in the box, if you don't think the same way I do, then you are my enemy," Kim explained. It's a process of "re-creating" people according to a person's own beliefs, she added, and in that way, subconsciously "playing God."

"To work with people, you have to honor other people's choices, and be firm in your sense of self and 'yes' feeling," said Kim.

That 'yes' feeling is the very thing she herself held on to during her moments of trial – the faith in the can-do God that allows the believer to say, "Yes, I can do this in Him."



Dr. Faith Kim has taught for over 30 years at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currently known as Gateway Seminary).

Kim believes that, in contrast to the world's focus on the results and the achievements, it's the faith during the process – in the midst of the letdowns and the messiness – that God pays attention to.

"God sees the process rather than the results. The process is the result," she said. "Throughout the process, God is asking us, 'Are you relying on my power which can do all things?'"

Where Do Christians Stand on Marriage, Online Dating, and Cohabitation?

A new study released earlier this month explored current day opinions on marriage, online dating, and cohabitation, and where Christians fall in that map.

On marriage, the Barna Group study, which was released on February 9, found that while just a little over half of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are married (52 percent), a higher proportion of practicing Christians and evangelicals (59 percent) are married. Among evangelicals alone, the proportion was even higher: 67 percent of evangelicals are married.

However, the proportion of Christians who are divorced is the same as that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study found. Among practicing Christians, 25 percent have been divorced, and the same rate was found for evangelical Christians (25 percent) and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25 percent).

Christians were also among those who supported cohabitation, though the likelihood that they supported it was much lower than those with no faith. While 88 percent of those with no faith agreed that "it's a good idea to live with one's significant other before getting married," 41 percent of practicing Christians, 35 percent of born-again Christians, and 6 percent of evangelicals said the same.

But among those who disagreed with the idea, "religious reasons" was the most prominent reason for not supporting cohabitation (34 percent).

Other reasons that survey respondents didn't agree with cohabiting before marriage included, "I don't believe people should have sex before getting married" (28 percent), "It isn't practical or doesn't make sense" (16 percent), and family or traditions (12 percent).

The study also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general adult population have not tried online dating at all (72 percent), and 52 percent said they would never try the service. Evangelicals were most likely to shy away from online dating, as 75 percent said they would never use it. Only 9 percent said they have used it once or twice, and 1 percent use it regularly.

Roxanne Stone, the editor in chief of the Barna Group, said that ideas around romance, and marriage in particular, have changed in recent years.

"While once viewed as the primary end goal for romantic relationships, the institution of marriage now seems to be under great scrutiny," Stone said. "The 'trials and errors' of dating now include living together as an assumed, final hurdle before marriage. In 2014, we found that while 82 percent of Millennials want to get married some day, they want to wait until they feel more fully developed as a person (70 percent), are financially established (69 percent), and have lived together (60 percent). A full 30 percent of Milliennials aren't so sure about marriage at all -- they express doubt as to whether or not they even believe in the conventional form of marriage."

Stone encouraged church leaders to take these factors into consideration in evaluating the way they minister to young adults.

"Are your ministries set up to meet the fundamental needs of that age group: career building, personal formation, social activities, friendship and the complexities of singleness and dating? Do you talk about the benefits and risks of online dating? Are you having frank conversations about sex? Are you able to offer a believable reason for why people shouldn't live together before marriage?"

"Churches are often afraid to address these questions outside of youth group -- but increasingly, young adults need this kind of guidance. They are skeptical that the church is relevant to their lives -- or that faith has answers for them," said Stone.


Ruben Nuño (left) was among the panelists featured at the Reimagining Religion Conference that took place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on February 9.

L.A. Ministry Leaders Discuss the Importance of Diversity and Space at Reimagining Religion Conference

BY RACHAEL LEE

"Los Angeles is American Protestantism in 20 years," according to Andrew Johnson, a research associate with the Center for Religion and Civic Culture (CRCC)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t a conference hosted by the CRCC held on February 9 called "Reimagining Religion," Johnson and leaders in the Christian community of Los Angeles discussed the diversity that the city offers, and how that affects the way pastors and leaders minister to others, during the first session of the conference, called "Place Matters."

"L.A. has been at the cutting edge of American Protestantism for more than a century, which makes L.A. the perfect place to ask how evangelical Christianity is changing at a time when the movement is undergoing a profound identity crisis," organizers of the conference stated in a description of the session.

Indeed, Johnson said that the diversity of the city puts it a step ahead of many other cities in the nation in several ways.

For instance, he said that "multiethnic congregations are the gold standard" in churches in this region, and that moreover, "L.A. pushes us away from thinking of multiethnic as white and other ethnic groups."

Johnson has, on numerous occasions, come across multiethnic congregations in which the majority were mixtures of African American, Asian American, or Latino American members, though the different congregations may have different proportions of these ethnic groups.

This portrait of diversity found in L.A. is what American Protestantism may look like in the future, he explained.

The session also featured a panel of speakers, including Ben Falcioni of Hope International Bible Fellowship; Ruben Nuño of Union Church of Los Angeles; and Judith Tiersma Watson from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who shared their own experiences of ministering in the diverse city.

Watson emphasized the need for churches to be proactive in being an agent of positive change in the city.

"Are we just using the space, or are we contributing to that space?" Watson posed. "We need to create culture, rather than just consuming the space."

Nuño mentioned another layer of diversity in Los Angeles: the diversity across socioeconomic lines. He said that exemplifying love between members of the church that come from vastly different socioeconomic backgrounds — an African American doctor and an African American who is homeless, for instance — is just as challenging as showing love across racial lines.

The conference took place from 9 AM to around 4 PM at USC's Town & Gown. Other topics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included the question of who decides authentic practices of religion when they are in contexts different from the religion's origins; the different voices that emerged 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after the #BlackLivesMatter movement; and the rise of the 'religious nones' and the implications of that increase.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Archaeologists found fragments of the jars in which the Dead Sea Scrolls were contained. (Photo: Casey L. Olson and Oren Gutfeld / Hebrew University)

Archaeologists Discover 12th Cave that Once Contained the Dead Sea Scrolls

Archaeologists have discovered a cave which they believe once housed the Dead Sea Scrolls, famous for containing the earliest copy of some of the Judeo-Christian texts, they announced on February 9.

It was believed until recently that only 11 caves in the Qumran region contained the scrolls. However, the excavation at this 12th cave brought about sufficient evidence that it had once contained Dead Sea Scrolls and that those scrolls were looted.

"Although at the end of the day no scroll was found, and instead we 'only' found a piece of parchment rolled up in a jug that was being processed for writing, the findings indicate beyond any doubt that the cave contained scrolls that were stolen," Dr. Oren Gutfeld, researcher at Hebrew University's Institute of Archaeology, said in a statement. "The findings include the jars in which the scrolls and their covering were hidden, a leather strap for binding the scroll, a cloth that wrapped the scrolls, tendons and pieces of skin connecting fragments, and more."

The excavation was led by the 'Operation Scroll' team, which is comprised of archaeologists from Hebrew University,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the Israel Nature and Parks Authority, and the Civil Administration of Judea and Samaria.

A team of students and professors from Liberty University, led by distinguished research professor Randall Price, also assisted in the dig.

This is the first discovery related to the Dead Sea Scrolls made in 60 years.

"I knew the cave had potential," Price said in a Liberty University article. "This is only the beginning of our search for more scrolls. Undoubtedly, they are out there, and we know of some 300 caves in the area. Our team is planning to return to excavate other caves in the near future."

Lamar Cooper, senior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archaeology at Criswell College who first participated in excavations in the Qumran region in 2006, told the Baptist Press that such excavations "tells [him] more and more that everything that happened at that place is what the Bible says."

He added that findings like this 12th cave are significant to him and the seminary community, who "stand strong on the Bible -- the authenticity of Scripture."

The Dead Sea Scrolls include texts written in Hebrew, Aramaic, and Greek, and the earliest texts were written in the 4th century BC. The documents not only contain some of the earliest texts found in the Bible, but also include secular texts that reveal what life was like in the times of Jesus.

Southern States Continue to Be Most Religious, With Mississippi Taking First for Nine Years in a Row

Of the 50 states in the U.S., those in the South continue to be the most religious, according to a recently released Gallup survey.

For the ninth year, Mississippi came in as the most religious state, with 59 percent its residents being "very religious." Alabama followed, with 56 percent of very religious residents.

Other southern states that came in the 10 most religious states include South Carolina (52 percent), Arkansas (52 percent), Louisiana (50 percent), Tennessee (50 percent), Oklahoma (49 percent) and Georgia (47 percent).

Only two states in the top 10 were not from the South: Utah (54 percent) and South Dakota (53 percent).

Vermont was found to be the least religious state, as 21 percent were "very religious." Maine (23 percent) and Massachusetts (25 percent) followed.

The survey classified residents as "very religious," "moderately religious," or "nonreligious" based on their survey responses on how important they believe religion is, and how often they attend church, Gallup explained.

"Very religious Americans say religion is important to them and report attending services every week or almost every week," the study states. "Nonreligious Americans are those for whom religion is not important and who seldom attend religious services. Moderately religious Americans meet just one of the criteria, saying either religion is important or that they attend services almost every week or more often."

Frank Newport, the editor-in-chief of Gallup, said that while there are no "clear-cut" explanations to the differing levels of religiosity state-by-state, much of it may have to do with a state's culture, "which in turn derives from many years of religious history."

"Children in highly religious states generally end up being more religious than children who grow up in less religious states," said Newport. "Persons moving to Mississippi may find themselves more likely to attend religious services because so many others are doing so, while persons moving to Vermont may be less inclined to attend because so few of their neighbors do."

Trump Administration Cancels Stay Request for Case on Transgender Bathroom Directive

The federal government has canceled a request to an appeals court judge asking for the Obama administration's guidance on bathrooms to remain in place for several states.

The withdrawal was filed on February 10 to the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In 2016, the Obama administration issued a guidance to all public schools, directing them to allow students to use bathrooms according to their gender identity.

However, 13 states sued the administration, during which case a federal judge ruled in the suing states' favor and forbid schools across the country from applying the guidance. The Obama administration thereafter appealed, and asked the Fifth Circuit Court of Appeals to allow the directive to apply to all other states except for the 13 which sued the government. The hearing on that latter request was scheduled to take place on February 14, but the current Department of Justice withdrew that reques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reviously shown support for the LGBTQ community, and has stated on January 30 that it would continue protections placed by the Obama administration for LGBTQ federal workers. LGBT community activists have expressed concern that the federal government is taking a step back from its support.



All gender restrooms at the San Francisco Federal Reserve Bank, pictured in November of 2016. (Photo: Ted Eytan / Flickr / CC)

"Our concern is that it's a very clear signal that at a minimum the Department of Justice — and possibly more broadly throughout the Trump administration — will not protect transgender students," said Sarah Warbelow, legal director for the Human Rights Campaign.

The Human Rights Campaign and other LGBT rights organizations sent a letter to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and Education Secretary Betsy DeVos on Monday asking them to keep the Obama administration bathroom directive.

"Each of these guidance documents is based on years of careful research to accurately reflect a substantial body of case law and proven best practice from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organizations state in the letter.

Meanwhile, conservatives like Tony Perkins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lauded the move.

"The Trump administration is right to stop the legal defense of an indefensible edict that violates the rights of parents and the privacy of schoolchildren nationwide," Perkins stated. "While this is a welcome first step, we are hopeful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formally withdraw the Obama edict so that parents and schools will remain free to protect the privacy and safety of every student."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 8132gospelchurch@gam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 ynccla.org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래디컬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첨단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갸주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불 상당 사은품)

공짜



수소수 무료 시음!
깨끗하고 건강한 물 드시러 오세요.
한국의 크리아틀 PLUS 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환 무상
- 냉, 온수 수소수기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잎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형 방지를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1병 Free)
$267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HIGH QUALITY 100% 천연성분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일염 생산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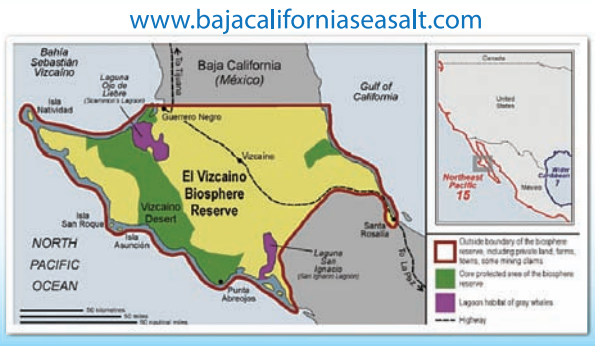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주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 CUT SUN 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 프루프/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구입 문의 213. 434. 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10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